

高麗式
速記學

金天漢 創案
安廷根 編著



高麗速記教育會

高麗式
速記學

金天漢 創案
安廷根 編著



高麗速記教育會



◆ 편저자 소개

- | | |
|----------------|-------|
| * 고려속기 교육 협의회 | 부 회 장 |
| * 중앙문화센터 | 속기강사 |
| * 전국 속기경진대회 | 운영위원 |
| * 한국 성경전문학교 | 속기강사 |
| * 한.영.일 속기비서협회 | 연구이사 |
| * 고려속기 교육연구원 | 원 장 |

안 정 근



2012.7.20

머 리 말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오늘의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이야말로 현실극복의 지름길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녀야 할 가장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인간은 옛날부터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온갖 사회문명이 발달한 20세기말에 있어서도 컴퓨터, 카세트 등이 속기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도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속기문자는 쓰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들리지 않게 음성의 제자리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와같이 간략하고 빠른 속기문자를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과 마찬가지로 익숙하게 쓰게 된다면 우리의 언어활동에는 일대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장시간의 필기, 경우에 따라서는 발음속도와 같은 기록을 요할때, 자신의 비밀기록등 여러난제들을 수반하는 오늘날의 필기생활에서 우리들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쓰는 노력을 하는데 온갖 정력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저서는 그동안의 불합리성을 시정, 보완하여 모든 사회구조가 스피드화 되어가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속기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편집되었다.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창안자 김천한, 김성한 선생님, 협회 회장님, 그리고 선배동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할 드립니다.

1982 . 7.

안 정 근

1. 속기의 정의	1
2. 속기학의 개념	2
3. 속기의 약사	6
4. 속기의 구성	7
5. 속기의 활용	8
6. 속기의 가치	9
7. 속기 학습의 자세	10
제 1 장 평음(기본) 문자	12
제 2 장 격음, 경음문자	23
제 3 장 복모음 문자	24
제 4 장 반 침	25
제 5 장 변 자	39
제 1 절 기본 변자	40
제 2 절 상용 변자	42
제 6 장 조 사	47
제 1 절 1 음조사	47
제 2 절 2 음이상 접속조사	50
제 3 절 어미 조사	54
제 7 장 반침의 활용	59
제 8 장 중등 약기편	68

제 1 절 “ 것 ” 약기법	68
제 2 절 첩어 약기법	69
제 3 절 문자위치 약기법	70
제 4 절 장선 약자	74
제 9 장 고등약기편	81
제 1 절 “ 에 ” 이하 약기법	81
제 2 절 “ -에 있어서 ” 약기법	82
제 3 절 “ 서 ” 열 약기법	83
제 4 절 “ -있 ” 약기법	85
제 10 장 연구 약기편	92
제 1 절 절반문자	92
제 2 절 자미전개법	93
제 3 절 부정약기법	94
제 4 절 위치약기법	96
제 11 장 동음(동행) 생략법	105
제 12 장 심원법	107
제 13 장 역독(역도) 법	108
제 14 장 상단 약기법	109
제 15 장 실기 약기법	112
제 16 장 수사 약기법	117
제 17 장 종합약자 및 특정문자	119
제 18 장 위치 약기법	124
제 19 장 종 합 편	133

1. 속기의 정의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이 있으며 쓰는것은 문자로써 나타나게 된다.

문자는 원래 자신의 사상, 감정이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로써 말하는대로 한마디도 빠짐없이 받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속기가 완전 독립된 학문적 지위를 차지하여 거의 필수적이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시점에서 속기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백과사전인 "The Encyclopedia America"에는 "속기란 사람이 말하는 것만큼 빨리 쓰는 기술"이라고 정의하였으며, "Standard Dictionary"에는 "속기란 적은 근육 운동으로 모든 언어와 문장을 필기체인 도표의 글씨로 표기하게 되어 있고 이는 보통 필기와는 다른것이다" 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우리의 국어대사전 "속기란 간단하고 편리한 부호로서 연설, 강연, 좌담, 담화 및 회의의 의사등을 그대로 즉석에서 빨리 쓰는것"이라 하였으며, 그밖의 사전에서도 제각기 표현은 달리하나 "속기란 사람의 언어나 자신의 생각을 빨리 쓰는 방법"이라는 데에는 일치하고있다.

즉 "속기란 타인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을 어떤 특정한 문자에 의해, 초속도로 필기하여 이것을 보통의 문자로 다시 쓰는 활동"을 말한다.

속기를 구분하면 전문직업속기와 비전문일반속기로 대별하여 전문직업속기는 분당 적어도 300 자 이상 속기능력이 있는것을 말하며, 비

전문일반속기는 일상생활에 즉, 강의나 메모 또한 자신의 비밀기록등을 속도에 관계없이 속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이 교재를 한번 보았을 때에는 비전문 일반속기는 무난하리라 생각한다.

2. 속기학의 개념

속기술을 이용하여 속기록(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처럼 속기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화를 속기문화라 일컫고, 속기와 관련된 모든 부문을 역사적으로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여 체계화하고 그속에서 보다 나은 내일의 가능성을 연구하는것을 “속기학”이라 한다.

속기학을 형성하는 내용은 형태론, 구조론, 언어론으로써 그 근간은 속기방식에 관한 형태론과 속기문자 구성에 관한 구조론인 것이다.

1) 형태론

속기방식은 초기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천이 있어서 또는 각 언어에 따라 수백종에 이르는 다양각색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가. 원시적 형태

언어의 보존성과 전달성을 가진 문자로서는 10 분간에 3,000 자 4,000 정도의 언어속도를 불과 500 음자 정도밖에 기록하지 못하여 단시간내에 많은 문자를 필기하고자 시도한것이 스스로 읽을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초서화하고 생략화하여 음성에 의한 언어표현을 그자리에서 받아쓰고자 하는 의욕으로 나타났다. 거기에서 다시 특수부호 문자가 고안되니

이것이 속기의 기원이다.

나. 부호체계속기방식

일반적으로 속기라 할 때에는 이 부호체계방식에 의한 속기 활동을 뜻한다.

가장오래된 속기방식은 고대회람용어의 Acropolis 식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일반문자의 성립후 그 일반문자를 참고로해서 그 보다 간단한 선으로 부호의 체계를 형성하였는데, 그 후 점차속기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속기방식이 고안되고 나아가 점의 이동에 의하여 선을 굵는다는 속기의 형태로 완성되어 온 것이다.

다. 속기방식의 기본요소

- * 음성에 의한 언어 표현을 그 속도에 따라 표기 하며
- * 표기된 것이 후에 일반문자와 될 수 있도록 변문할 수 있어야 한다.
- * 이들 속기문자들이 노력에 의하여 기억, 사용되어야 한다.

2) 구조론

가. 정원파 (기하선파)

정원파는 자와 콤파스에 의해서 쓰여지는 기하학적선을 이용코자 한것인데, 즉 정원을 등분하여 그 등분된 원의 둘레와 직선들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점, 원, 갈고리등의 표시를 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그 특징은 각 선이 기하학적 성질에 의하여 분류될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러 구조론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우며, 역사적으로는 1720년 "바이롬" 식과 1837년 "핏트맨" 식으로 대성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속기법 대부분이 “핏트맨” 식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나. 사선과 (초서과)

정원과가 이용 가능한 획선을 추출하여 사용코자한데 대하여 기록편리한 선만을 이용한 것이다.

즉, “로마” 자의 필기체를 정리하여 우상의 사선과 좌하의 사선의 앞뒤에 갈고리나 원등을 이용한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로마” 문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1802년 Neo식(이태리), 1808년 Thibierge (프랑스), 1834년 “가벨스 버거” 식(독일)에 이르러 대성하였으며,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다. 타원과 (반초선과)

정원과 및 사선과의 절충이라 하겠다.

이것은 수평, 좌하향, 우하향의 3가지의 직선과 그것을 현으로 하는 자연원, 소위 자연선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원과 갈고리를 병용하고 있으나, 모든 속기가 정원과의 정등을 갖고 있다. 1886년 “매로우” 식과 “그래그” 식—영국— 등에 이르러 전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 속기문자 구조상으로 본 3가지 형태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기술하였으나, 어느것이 가장 우수한 구조나 하는것은 각기 입장일단이 있어 단언하기 어렵다.

3) 언어론

가. 표자설

표자설은 속기문자의 형태를 보통문자가 나타내는 요소

와 동일한 것으로 하려는 사고 방식이다.

즉, 음성에 의한 언어 표현을 그대로 쓴다는 소위 원시적 속기 방법이다.

나. 표음설

표음설은 근대속기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핏트맨” 식이 취하는 방법으로 음성학적 입장에서 언어의 표음적 원칙에 중점을 두고 속기문자를 구성하는 사고방식이다.

다. 표어설

표어설은 표음설 자체의 결함을 점차 인식케 되어 나타난 것으로 속기활동이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문자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 들리는것을 음대로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 보다 그 뜻을 이해하면서 받아쓰는 것이 효과적 이라는 데에 결론을 얻어 근대속기들이 점차 표음설에서 표어설로 발전해가고 있다.

라. 표의설

이는 표어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동일한 의미의 말은 동일한 속기문자로 표기 (예 : “사람” 과 “인간” 은 “사람” 이라는 문자 하나로 표기하는 따위) 해도 된다는 설인데 이것은 속기가 음성에 의한 언어 표현을 그대로 문자화 한다는 면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다.

속기활동이란 인간 생활중 언어 생활에 지견되는 활동이다. 따라서 언어가 성립된 후에 문자가 성립되었고 그 후에 속기가 발생되는 점을 감안할때 언어의 연구와 속기의 연구는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특히 속기문자와 그 나라의 국어와의 관계는 직접적인 상충관계를 가지고 있다.

3. 속기의 약사

1) 국외

기원전 63년 “로마”의 “Tiro”가 약기법을 창안한것을 효시로 받
 진되었으며, 그는 이 약기법으로 유명한 웅변가 “Cicero”의 연설을
 기록하였다. 이것으로 당시의 원로원 승원회의의 의사를 기록하였고
 “Augustus” 황제는 손자에게 약기법을 가르쳤고 “Titus” 황제도 능
 숙한 속기사였다.

이약기법은 약기형태에 불과하였으나 14세경까지 사용되었다.

이후에 1786년 영국의 S. Taylor의 법식이 창안되었고 1803년
 에 Hansard 협회에 의하여 속기법에 의한 의사록이 간행되었다.

그뒤에 1826년 프랑스의 Prevost 식, 1803년에 독일의 Gabelsb-
 erger 식, 1834년 스페인의 Marti 식 등 많은 속기법식이 창안되어
 각기 활용되었다. 1837년영국의 “I. Pitman”에 의하여 창안된 표음
 속기술은 현대속기의 신기원을 이룩한 것이다.

지금 세계 각국대부분이 이 “Pitman” 식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뒤 1888년 영국의 “Gregg”가 타원과 속기법을 창안하
 여 미국에 보급되었고, 대륙제국에도 응용되었으며 “Pitman” 식 과
 더불어 현재까지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다.

동양에서는 1882년 일본의 “田鎖”가 “Pitman” 식을 이용 창안
 하여 1890년 일본제국회의에서 활용하게 되었다.

2) 국내

1909년 박여일씨가 하와이에서 “조선속기법”을 발표하였고, 1923년 김××씨가 상해에서 “날적말적기름” 발표했으며 1925년 방익환, 이원상씨가 “조선어속기술”을, 1927년 엄정우씨가 월간 “동광”지에 “조선 속기법”을 1934년 김용호 씨가 “조선어 속기법”을, 1935년 강준원씨가 동아일보에 “조선어 속기술 강해”를 발표하였으나 일제하라 실용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발표에만 그쳤을 뿐이다.

그러나 8.15 해방과 더불어 1946년 12월 12일 일본어 속기를 하던 6명의 속기사가 속기특을 작성하였으니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실용 속기이다.

이때 김천한씨는 “고려법식속기”라고 하는 것을 창안 발표하였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속기이며, 가장 정통파이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갖기바란다.

그후에도 여러 속기법이 창안발표되었으나, 속기법자체의 미비로, 또한 사이비 속기법의 도태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4. 속기의 구성

속기라고 하는것은 단순히 빨리쓰기만 한다고 해서 완벽한것은 아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서 말한것을 그대로 기억한다면야 더 바랄것이 없겠지만 인간의 두뇌로서는 한자도 틀리지 않고 기억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속기문자는 앞서도 서술한바와 같이 점과 선 그리고 원과 위치

등으로 구성되는 간단한 부호로서 이루어지는데 이기호에는 되도록이면 많은 말과 뜻을 담아야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속기문자는 한글, 영어등과 같이 표음문자이다.

즉, 우리 한글에는 19개의 자음과 21개의 모음을 합하면 399음자 (약 260자가 주로 사용)가 되며 또한 27개의 받침까지 합하면 1,254자가 된다. 이것을 겸용 가능한것을 축소시키면 약 9개의 선에서 우리가 발음하는 모든것을 표기될수 있다.

5. 속기의 활용

문화의 발달과 인간 두뇌의 발달로 언어기록은 더욱 중요성을 띠고 있는바, 인간의 사상은 언어에 의하여 표현되고 그 표현된 언어의 생생한 기록화는 과거와 미래의 충실한 교량역할로써의 역사성을 가지며 음성의 청각에 의한 의사전달효과를 문자의 시각에 의한 효과로 전환시킴으로써 보다 명백하고 신속히, 그리고 후세에 영구히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인류 역사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어가 존재하는 한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속기가 활용되며, 필요의 정도에 따라 같은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쓰여지고, 속기문자가 일반문자의 영역까지 활용될 전망이다.

- 1) 회의속기 : 의회, 주주총회, 각종공사단체, 이사회등의 진행과정을 기록할 때
- 2) 취재속기 :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등 언론기관 기자들이 취재 또는 기사송고를 기록할 때
- 3) 강연속기 : 각종 강연회에서 연사의 발언 내용을 기록

- 4) 재판속기 : 각급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질의 응답, 조서, 심문등을 기록할 때
- 5) 좌담속기 : 각종 좌담회나 대담내용을 기록할 때
- 6) 비서속기 : 상사의 서한이나 지시사항, 또는 예정일정의 구술내용과 전화등을 기록할 때
- 7) 강의속기 : 교교 및 대학등 학교에서 강의내용을 기록할 때
- 8) 구술속기 : 저술을 위한 교수, 문필가등의 구술을 기록할 때
- 9) 설교속기 : 종교단체에 말씀을 기록할 때
- 10) 방송속기 : 정보기관 및 방송을 기록할 때
- 11) 비밀속기 : 자신의 메모 및 일기등을 기록할 때
- 12) 군대속기 : 군법회의, 각종 군사회의 등을 기록할 때등 그 활용범위는 무궁무진하다.

6 . 속기록의 가치

1) 정확성

일반문자에 의한 속기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속기술에 의하여 회의의 내용과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여 기록할 수 있으므로 국회법 및 상법에도 “ 모든 회의는 속기법에 의하여 기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역사성

속기록에는 역대회의의 모든 의사를 비롯하여 보고서 및 참고문서들이 정확히 수록되어 있으므로 회의의 모습을 생생하게 후세에 전한다.

3) 공시성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회의 회의관계자 및 국민 일반에게 영포함으로써 그 내용을 널리 알린다.

4) 증거성

회의 내용에 시비가 있을 경우 속기한 내용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으며 발언자는 “말의 사진사”인 속기사를 의식하며 정확한 발언을 하게 된다.

5) 참고성

속기록을 통하여 법률 해석에 참고함은 물론 과거의 회의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회의에 대비할 수 있다.

7. 속기 학습의 자세

속기를 처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저 빨리 쓰는데에만 급하여 각도나 길이의 조그마한 차이에 따라 의미나 음이 달라지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게 하므로써 속기는 어렵다고 하는 말을 종종들어오는데 속기의 첫단계는 천천히 그리고 바르게 쓰다보면 문자의 형태, 각도, 길이가 자연적으로 익혀지게 된다.

속기는 머리로써 기억할뿐 아니라 손으로 익혀서 평균적인 속도로 거침없이 쓰여져야 하는데,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문자를 수십번씩 쓰고 넘어가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날 그날의 고된 그리고 단조로운 반복 연습에 단련되었는가에 따라 속기의 성패는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책한권정도는 4주-5주 정도면 완전히 끝낼수 있고
속도 연습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조금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 속기쓰는 법을 연마하는 것이 속기를 완전습득할 수 있
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잊지말기 바란다.

제 1 장 평음 문자

제 1 절 “가” 줄 문자

가 거 교 구 기 구 개 계

가 거 교 구

(연습)

가가	가교	가기	가개
거기	거구	거겨	교가
교기	교가	교겨	기겨
기구	기교	교가	교기
개교기	거구가	기교가	개가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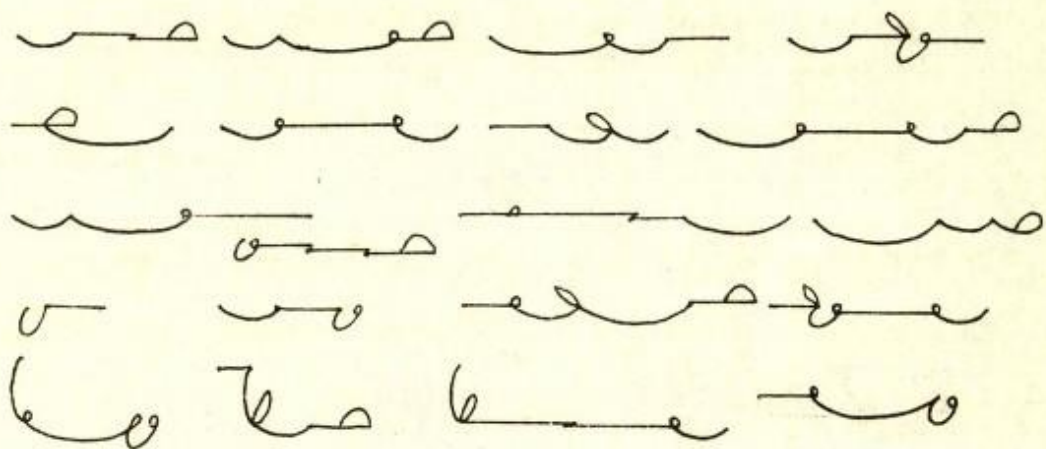
제 2 절 “ 나 ” 줄 문자

나	너	노	느	니	누	내	네
(나)	(너)	(노)			(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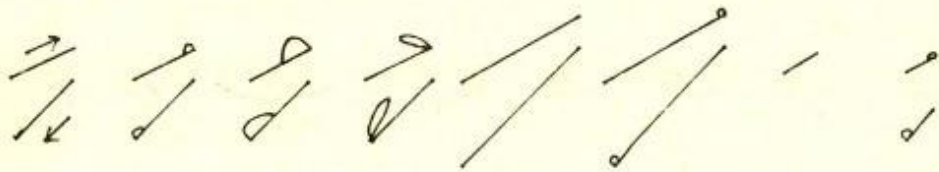
(연습)

나가고	나누고	누나가	나그네가
고니	너구나	가느냐	누구나고
나누기	네가가고	저기가니	니나노
내가	나가네	저느니고	그네구나
저누네	개교냐고	교기구나	저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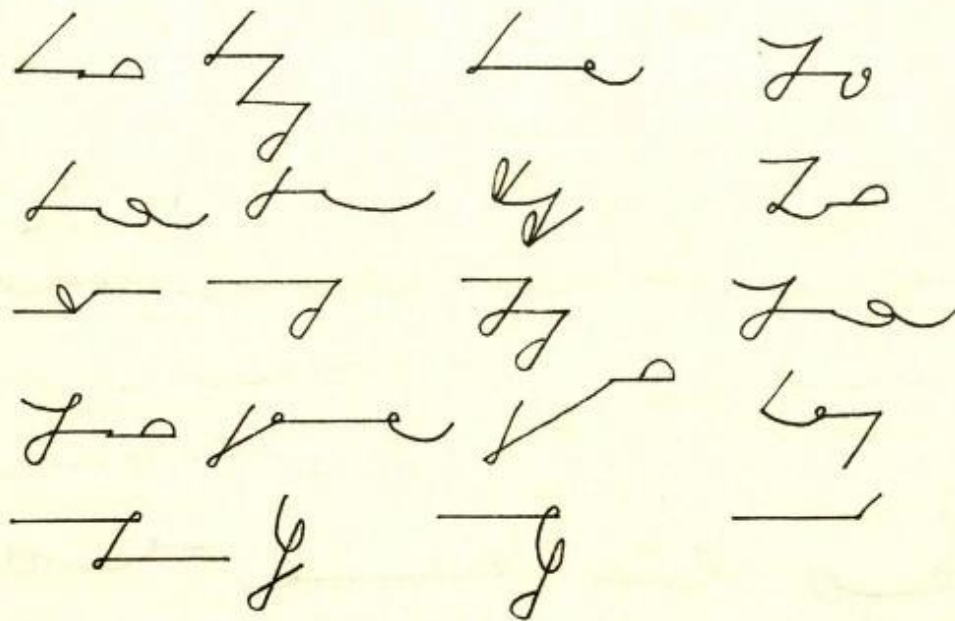
제 3 절 “ 다 ” 줄 문자

다 더 도 드 디 두 대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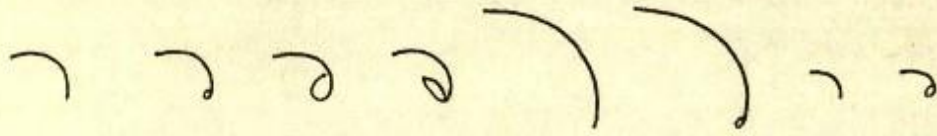
(연습)

다가고	더가다가도	더구나	나도가네
더가느냐	도가니	드나드나	가더냐고
그대가	기도	가도가도	나도가느냐
너도가고	더더구나	더디고	다녀가다
구더기	교도대	구교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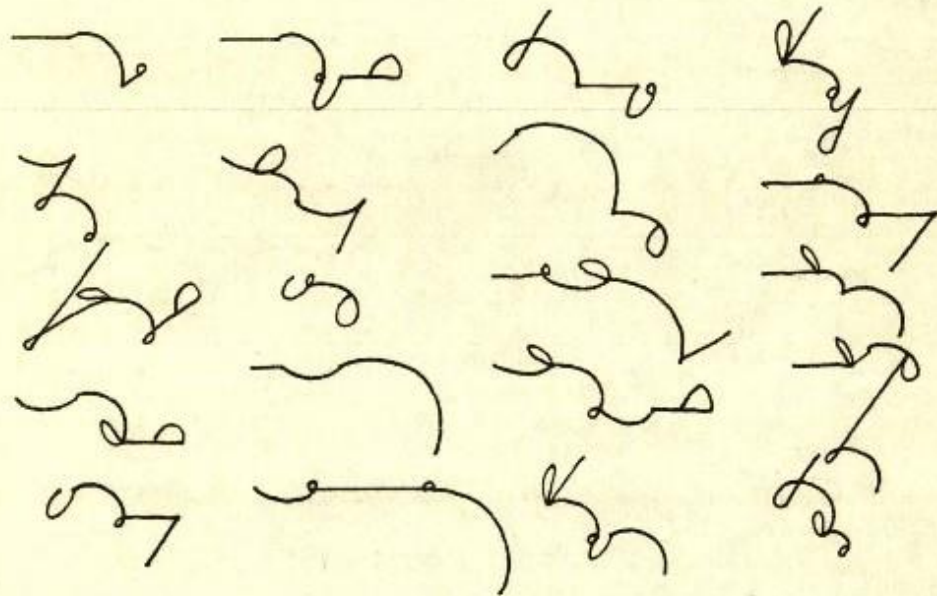
제 4 절 “ 라 ” 줄 문자

라	러	로	르	리	루	래	레
(라)	(러)	(로)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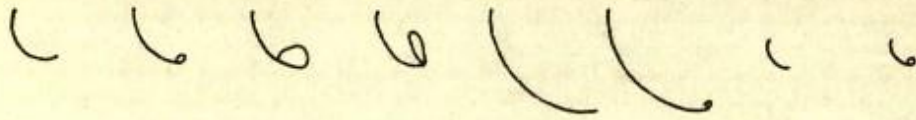
(연습)

가라테	가러내교	도라가네	드러내도
나더러	노라나다	느러나고	거러가다
두드러도	네로	대리로	그래라
나르고	개나리	거느리다	그대로우라
내려가다	너구리	드러내라	도르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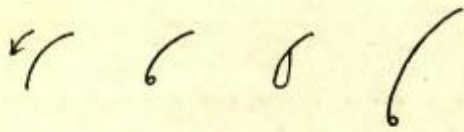


제 6 절 “ 바 ” 줄 문자

바 버 보 브 비 부 배 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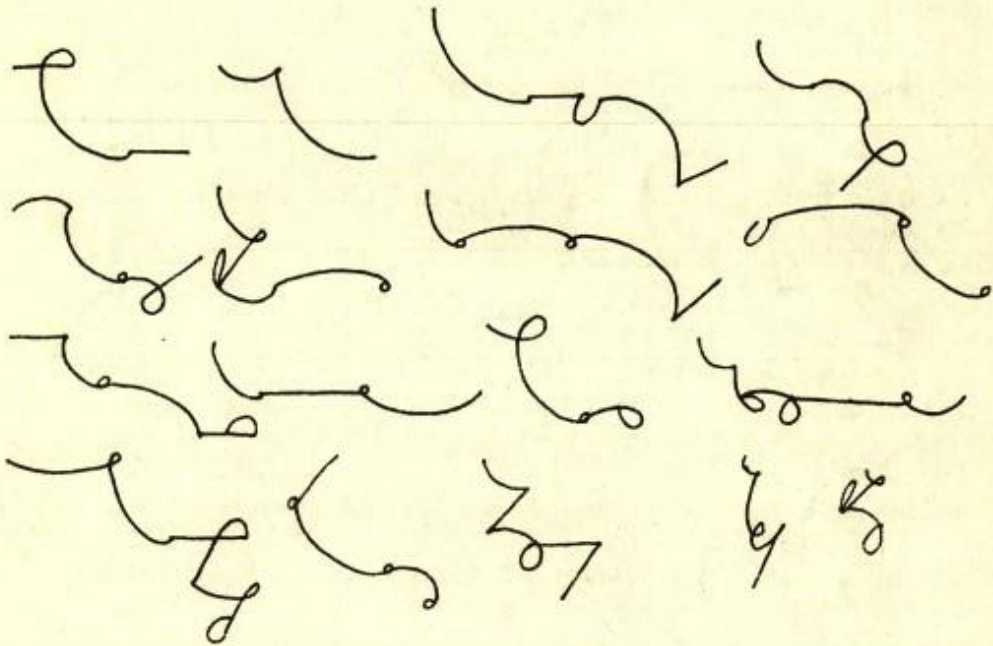


ㅂ ㅅ ㅈ ㅊ



(연습)

코비가	나비	비가내리다	바라보다
마부로다	바구니	노부모	바보로구나
가버리고	버드나무	버무리다	내무부
누비고 다녀도	더부러	바다로가다	배겨내다
나가버리다	누구보다도	보도로가다	베드로



제 7 절 “ 사 ” 줄 문자

사 서 소 스 시 수 새 세
 (샤) (셔)

))))))))

(연습)

소나기	모서리	도시로가다	세수
사다리	수세미	교사리	거스르다
가라사대	수그리다	도사리고	브리수
개소리마라	거래소	교수대	다스리다
코스모스로다	가로세로	소사나다	서로가

제 8 절 “아” 줄 문자

아	어	오	으	이	우	애	에
ㄱ	ㄴ	ㄷ	ㄹ	ㅁ	ㅂ	()	
야	여	요	유	애	예		
ㄱ	ㄴ	ㄷ	ㄹ	ㅁ	ㅂ		

* “의” 자를 쓰는요령

1. “의” 자가 첫자로 쓰일때 → ㄹ

2. “의” 자가 중간에 쓰일때 → /

3. “의” 자가 마지막 (소유) 에 쓰일때 →)

(연습)

아세아에서	아버이	아내가	내아가
어머니	매어라	오로라	오래
오무리다	이대로그다	의리	무의미로다
외미가	외레이	거의가	고의로
이사야	이대로그도	이데오르기	여기에서
아무래도	계으르다	대수로이	드라이브

z z n n

m m b b

l l s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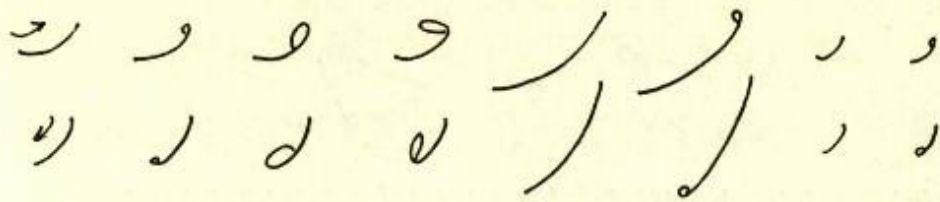
t t z z

y y p p

q q r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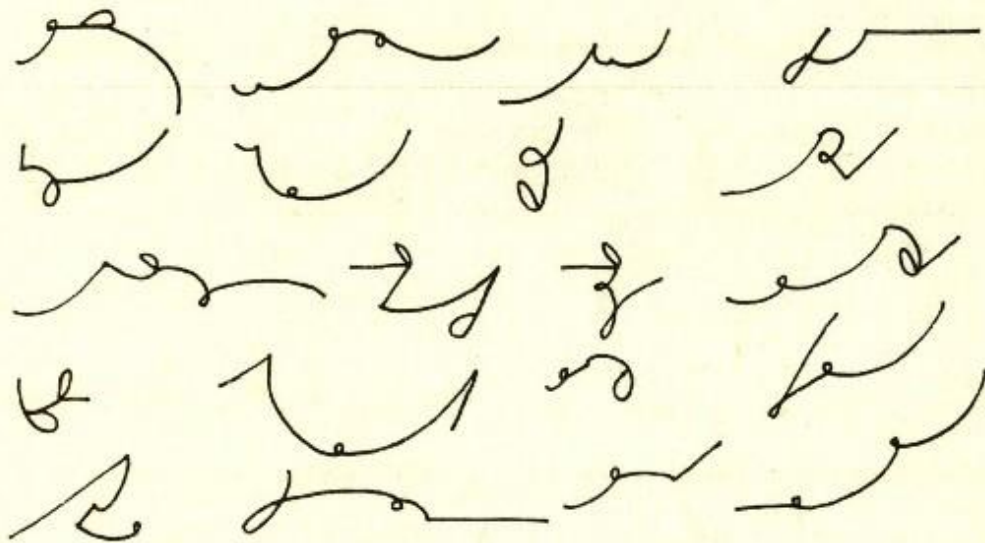
제 9 절 “ 자 ” 줄 문자

자 저 조 즈 지 주 재 제
 (자) (저) (조)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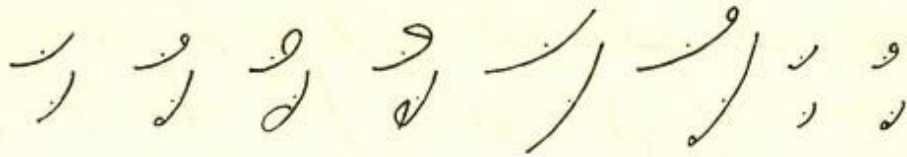
(연습)

저고리	아주머니	지배자	도자기
오로지	아버지	쥬스	지세우다
지느러미	그다지도	그제서야	저지르다
보조개	다부지다	제대로	두더지
디자이너	조무래기	적마다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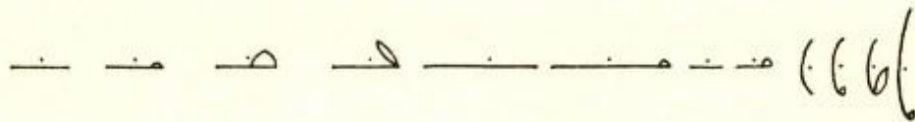


제 2 장 격음, 경음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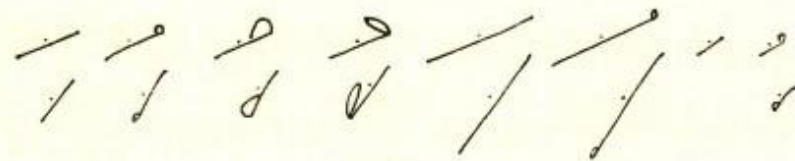
제 1 절 “ 차 ” 줄 문자



제 2 절 “ 카 ” 줄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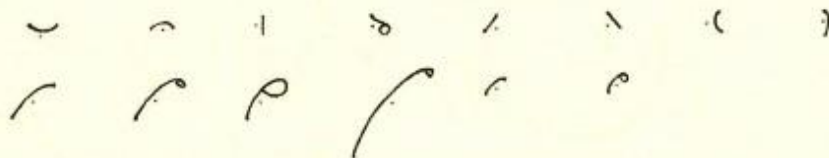
제 3 절 “ 타 ” 줄 문자



제 4 절 “ 파 ” 줄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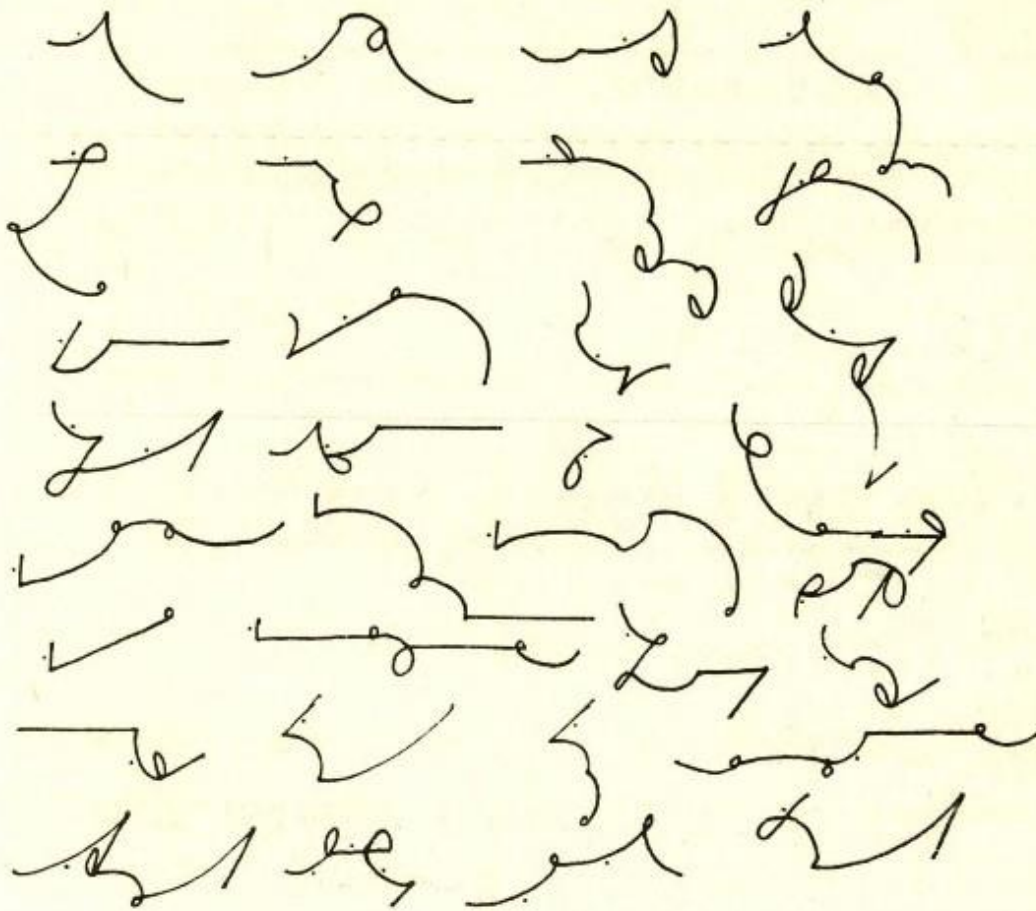
제 5 절 “ 하 ” 줄 문자



* “ 짜까따빠싸 ” 문자는 상기한 반대 방향에 부점하므로 표시 한다.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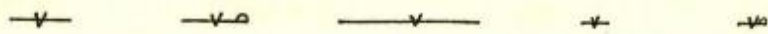
차비	치료비	나치스	처부수어라
코주부	카우보이	크리스마스	도토리
타자기	사투리	사파이야	스피드시대
파도치다	자포자기	우표	포부가크다
호주머니	호루라기	호미자루	효자로다
호두	호구로구나	뼈더나가다	빠르다
기쁘다	따라지	따라서	너무짜구나
찌드러지다	쪼코파이	쭈쭈바	토라지다



제 3 장 복모음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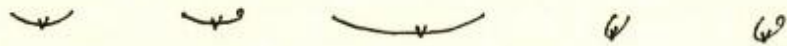
제 1 절 “과” 줄 문자

과 귀 귀 궤 괴 (괘)



제 2 절 “놔” 줄 문자

놔 뉘 뉘 뉘 뉘 (뉘)



제 3 절 “되” 줄 문자

되 뒤 뒤 돼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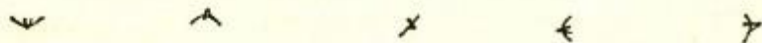
제 4 절 “워” 줄 문자

워 워 워 워 (워)



제 5 절 “와” 줄 문자

와 위 위 왜 웨 (외)



- * 받침편에 들어가서는 “ 격음, 경음, 복모음 “ 표기는 생략된다.
따라서 전후문자의 관독으로 구분하게 된다.

제 4 장 받침

한글에 있어서의 받침은 홑받침과 들받침 및 쌍받침이 있다.

그중 홑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등 14 개가 있고 쌍받침은 “ㄱㄱ ㅅㅅ” 등 2 개로 써 모두 28 개가 된다.

그러나 속기법은 철자위주가 아닌 발음 위주이기 때문에 들 받침이나 쌍받침은 홑받침으로 병용하고, 홑받침중에서도 발음이 같은 것은 한데 묶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 개만 사용하기로 되어있다.

즉 “빛빋빋 ……” 등 음은 같으나 받침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 그 가치를 따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같은 음을 가진 받침은 그 소리대로 가치를 인정하나 .번문시에는 전후문자의 구성에 따라 우리말 맞춤법에 맞게 사용한다.

각 절마다 제 1 절 ㄱ 받침부터 → 제 7 절 ㅇ 받침까지 배우는데 각 받침에 혼용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면

ㄱ 받침 …… ㄱ ㅋ ㆁ ㄱ ㅅ ㅁ ㄹ ㄱ

ㄴ 받침 …… ㄴ ㅅ ㄴ ㅎ

ㄷ 받침 …… ㄷ ㄹ ㄷ ㄹ ㅅ ㄹ ㅍ ㄹ ㅎ

ㄹ 받침 …… ㄹ ㅁ ㄹ ㅁ

ㅁ 받침 …… ㅁ ㄹ ㅁ ㄹ ㅂ ㅁ

ㅂ 받침 …… ㅂ ㅌ ㅂ ㅌ ㅅ ㅌ

ㅇ 받침 …… ㅇ

ㅎ 받침은 무성음이므로 만들지 않았으며, 소리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즉, 좋다-조타, 좋고-조코, 좋지-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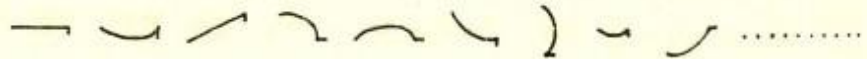
제 1 절 “ ㄱ ” 받침

받침법에는 단독으로 닿소리 (받침) 자체는 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문자에 덧붙여서 비로소 그 소리가 나게 된다.

따라서 속기받침도 그 문자에 붙어서 되는 것으로 그 길이는 1
- 2 미리 정도로 통일하였다.

ㄱ 받침은 “ ㄱ ” 의 → (수평) , ↓ (수직) 으로 속기문자의 자미에
부 포함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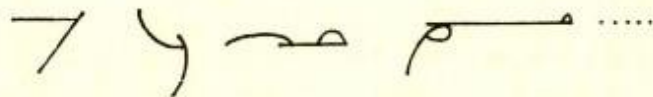
예) 각 낙 탁 락 막 박 삭 악 작



그러나 ㄱ 받침 다음에 문자가 올때에는, 그 받침은 다음문자의 머
리 (자두) 가 두각으로 되어 접속하게 된다.

* 두각
: “ ㄱ ” 받침이 있는 글자자미를 뒤에 오는 문자로 1 - 2 미리 가
량 떨어져서 쓸때생기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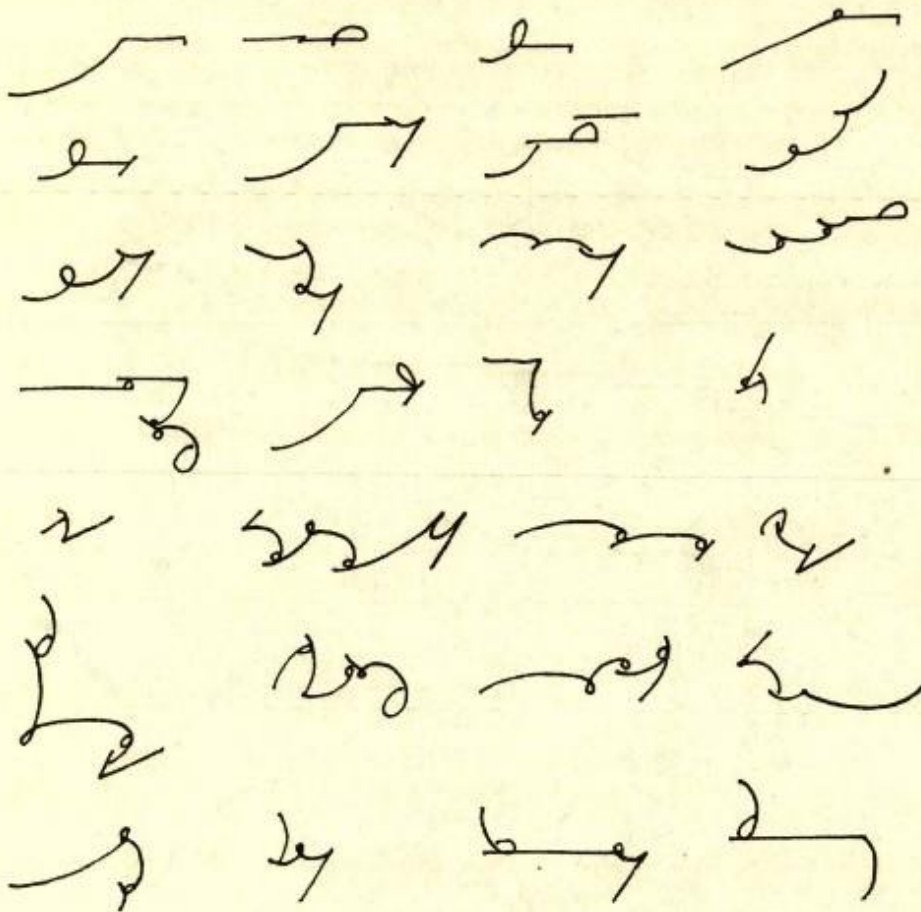
예) 각다 박사 막교 육구



* “ ㄱ ” 받침뿐만 아니라 속기받침은 이론상으로 1 - 2 미리 정도의
선이다 - 라고 외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연습을 통하여 익혀야
한다.

(연습)

지각	가곡	조각	두각
조각이	지각하다	작곡가	저작자
조작하다	낙서하다	막막하다	넉넉하고
국가적으로	지극히	가격이	덕택에
덕에 다	이러저러지내다	묵묵히	백박이다
속수무책이다	역사적으로	무역적자	타락하니
추석에	삭제하다	복구하다	속기사



(연습)

난다	난사	거닌다	더딘가도
댄스	잔다	스잔나	터진다고
내비도	하얀데	간단이	군인이다
근간에는	넌센스	어딘가에	잔잔한바다
전직하다	언젠가도	윤천사	선거전이다
연기하다	찬란하게	인간적으로	산만하다

너무 뛰다보면 기진맥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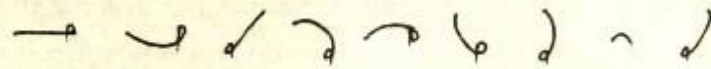
전략까지 신속하게 짜놓아야 이긴다.

Handwritten cursive practice for the words listed above, showing the fluid, connected strokes of the Korean script.

제 3 절 “ㄹ” 받침

ㄹ 받침과 같이 빠지는 성질은 같으나 그 방향이 다르다.
 즉 ㄹ 받침은 1-2미리 정도의 선을 수직 (|) 으로 빠진다.

예 : 걸 널 덜 렴 멀 벌 설 얼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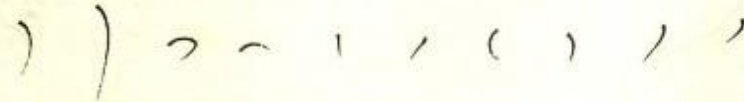


다만 수평 또는 그 이하로 평음 (단선) 문자가 끝나는 경우는 그대로 단선 평음문자의 자미만을 받침으로 ㄹ이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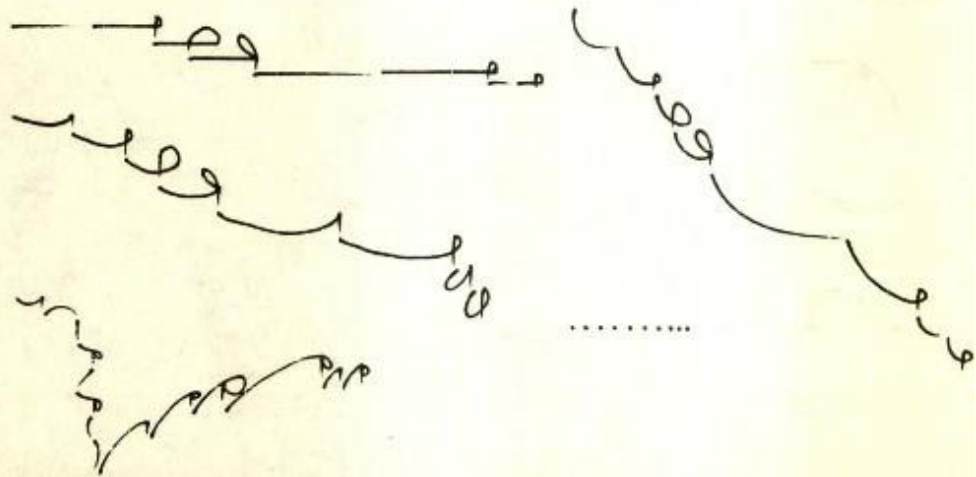
예 : 갈 길 갯 갈 달 덜 말 밀 발 빌 벨



살 실 썰 얼 울 일 엘 열 잔 겹...



- ㄹ 받침문자 하나만 쓰게 되면 ㄹ 받침인지 ㄱ 받침인지 분간키 어려울 때가 있으나, 뒷 문자를 보면 능히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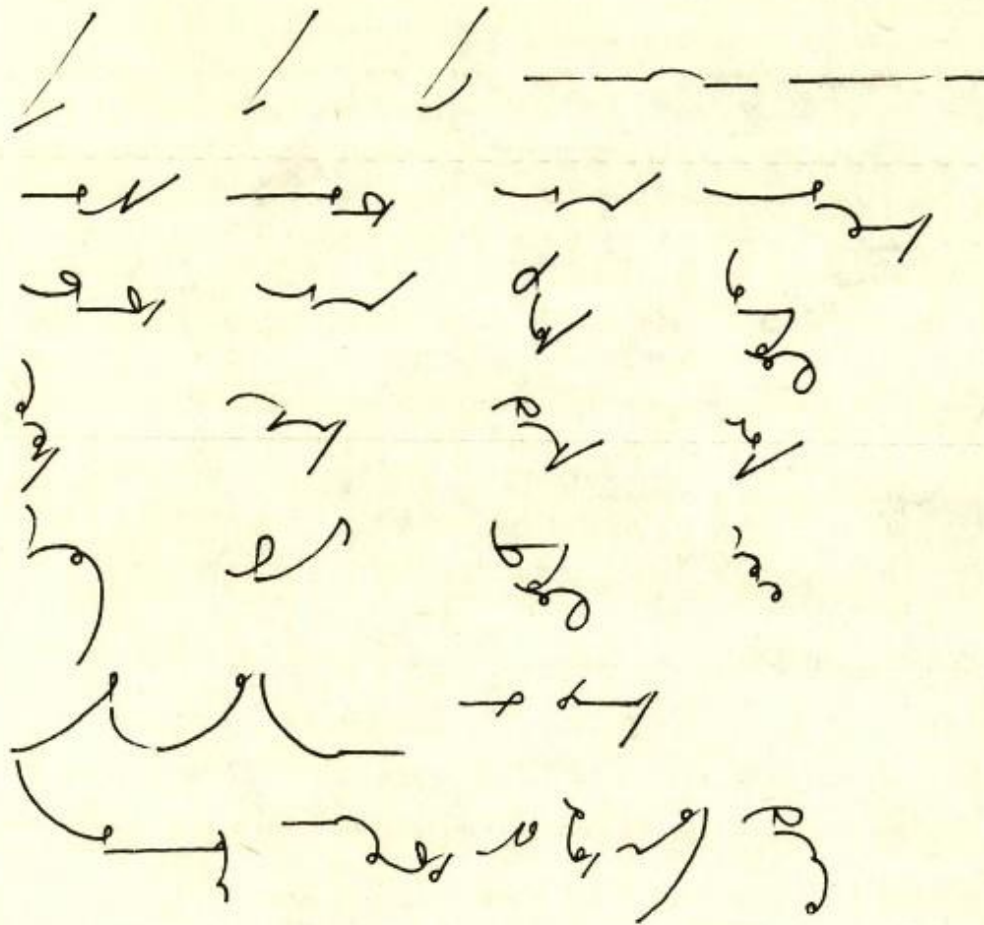
(연습)

“ 일 ” 자는 20미리 이상, 즉“ 닮 ” 과 같이 쓰는것이 좋다.

일다	일대	일자	갈가말가	길가
절작이다	굴푼이	날마다	돌격이다	결과적으로
늪은이	말이 많다	물락이다	포괄적으로	헐헐레
살며시	줄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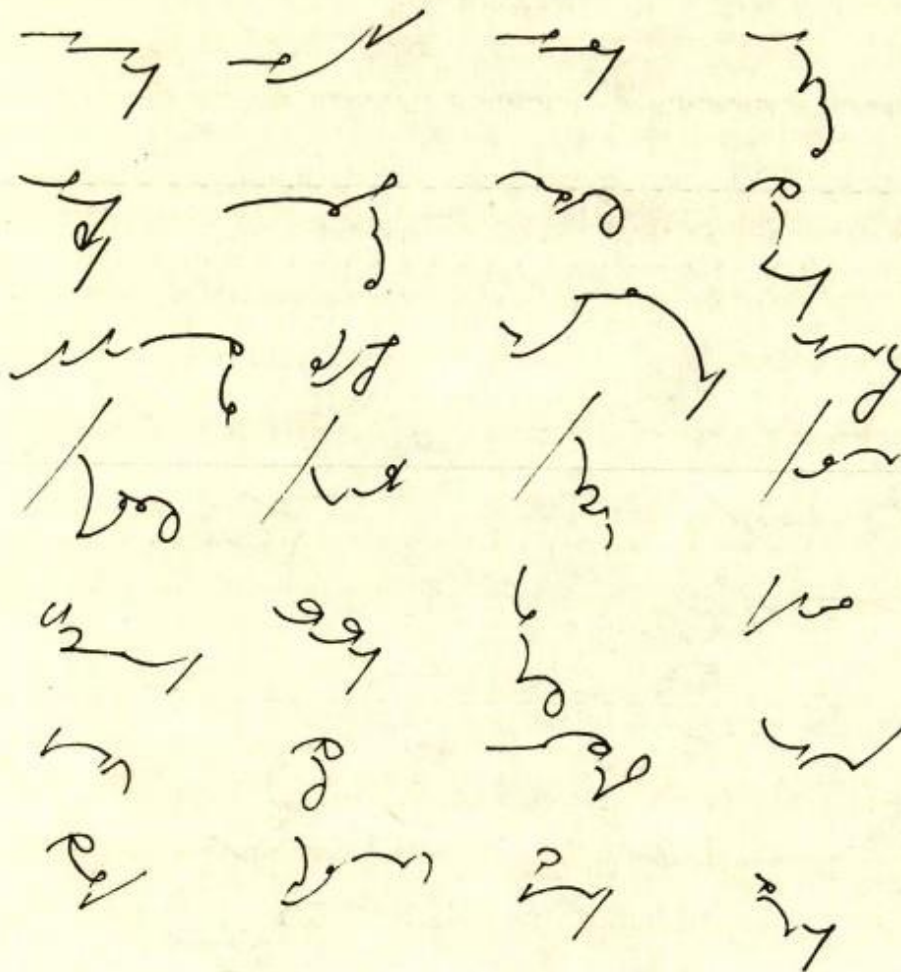
출발준비가 거의되어간다

불국사에 가려는데 자네의견이 어떤지 몰라서……



(연습)

감감하다	검진이다	검거하다	남산에서
넘나든다	무덤에서	마음대로	몸살이나다
잠잠한물결	점잖게도	움직거린다	암만해도
일시적으로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일천만
냄새가난다.	늪늪하다	검사로	담담하게
이맘때에	몸소	가뭄에도	밥마다
모범이다	삼천만의	샘이 많다	음란하다



제 5 절 ㅂ 받침

: “ ㅂ ” 받침은 좌상 ↖, 또는 우하 ↘ 방향으로 2 미리정도 자미에 붙이되 빠치지 않는다.



그러나 ㅂ 받침 다음에 문자가 계속될 때에는 ㅂ 받침이 있는 문자를 교차시켜 잘라쓰므로 ㅂ 받침을 표시하게 된다.

즉, 갑다 갑자기 무겁다 겁이 많다



연습)

갑작스러운 사건이다.

높다란 길이다.

무덤다고 하더라

몹시가 나다.

이제 그만 나가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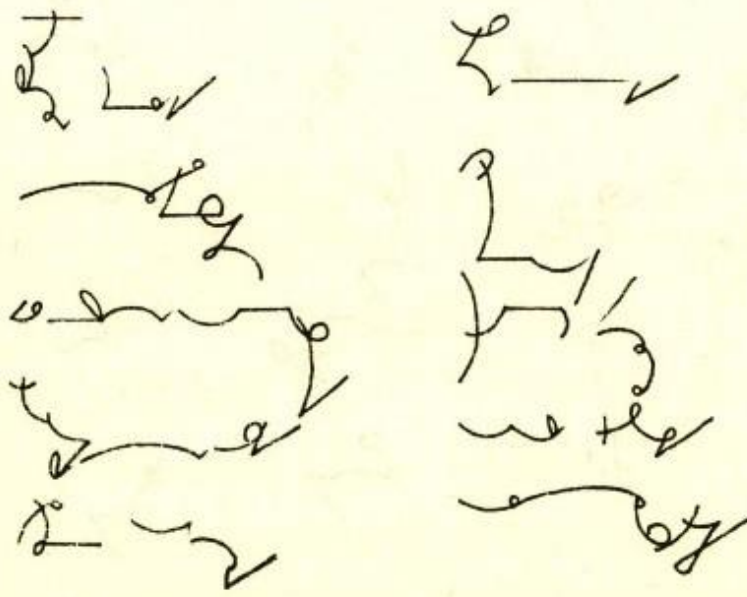
십자가에 달려서

압박받은 민족이다.

나는 옮겨버이다.

엽시가 날라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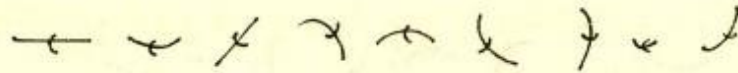
너무 복잡하도다.



제 7 절 “ ◦ ” 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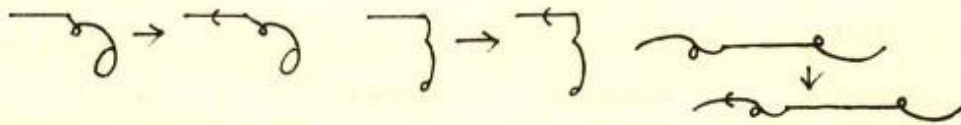
◦ 받침은 ◦의 각부분선이라 할수 있는 2미리정도의 곡선을 적당히 붙여주되, ◦ 받침이 있는 문자중간에 표기한다.

예 : 강 남 당 량 망 방 상 양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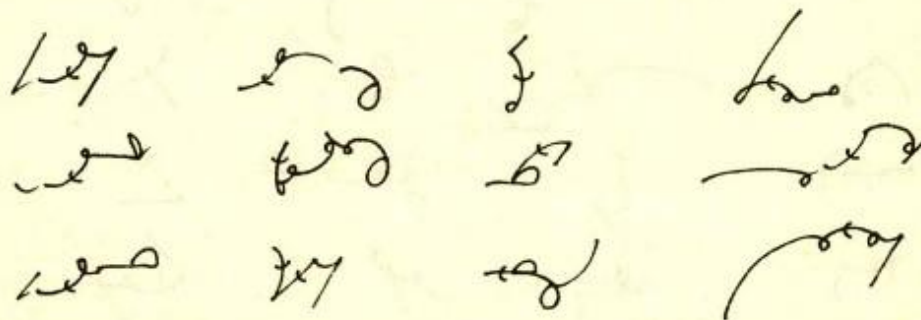
단어가 연결될 때에는 그 문장을 전부 쓴 후에 ◦ 받침을 표기하므로 격음, 경음 쓰는 경우와 같은 필법이 된다.

즉, 강으로 강에서 명하구나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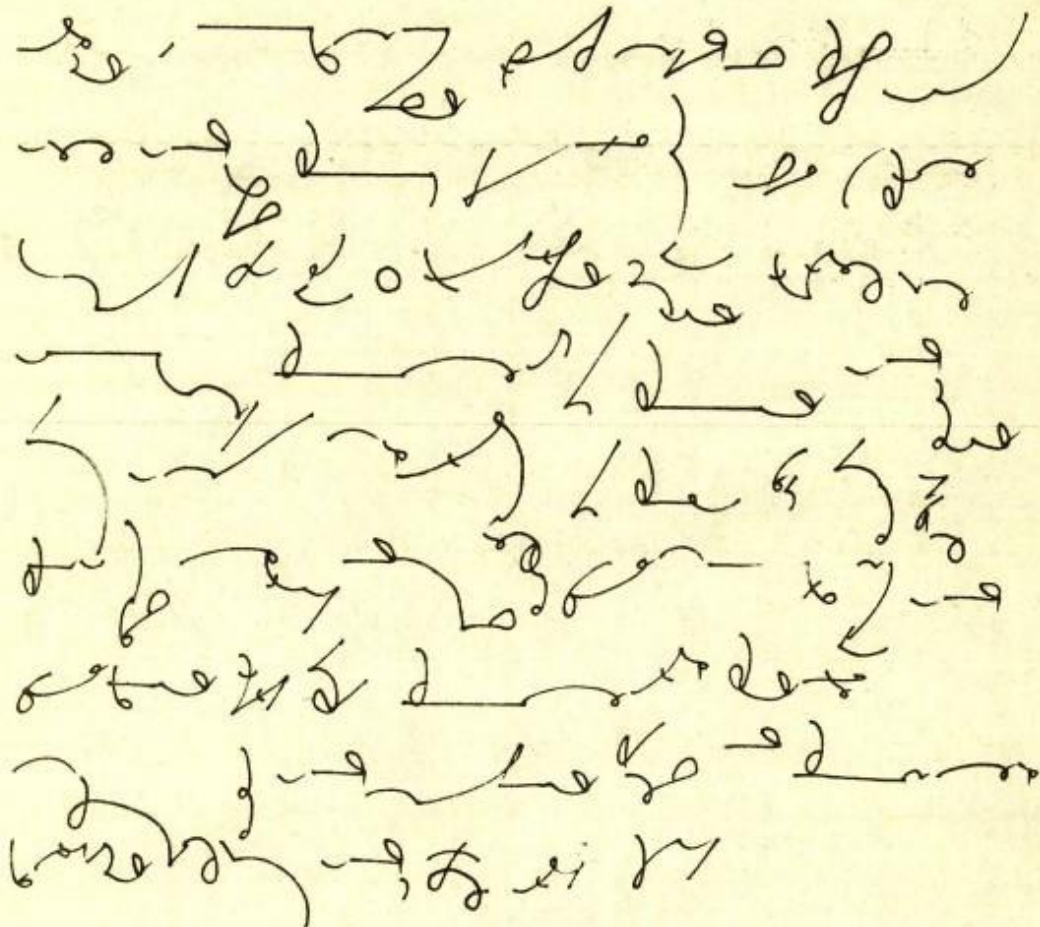
단정하다	정말로	이성	투명하게
안정근	경제적으로	고양이	문장력이
인정하고	상당하다	공로자	유명하다



- 문장 연습 예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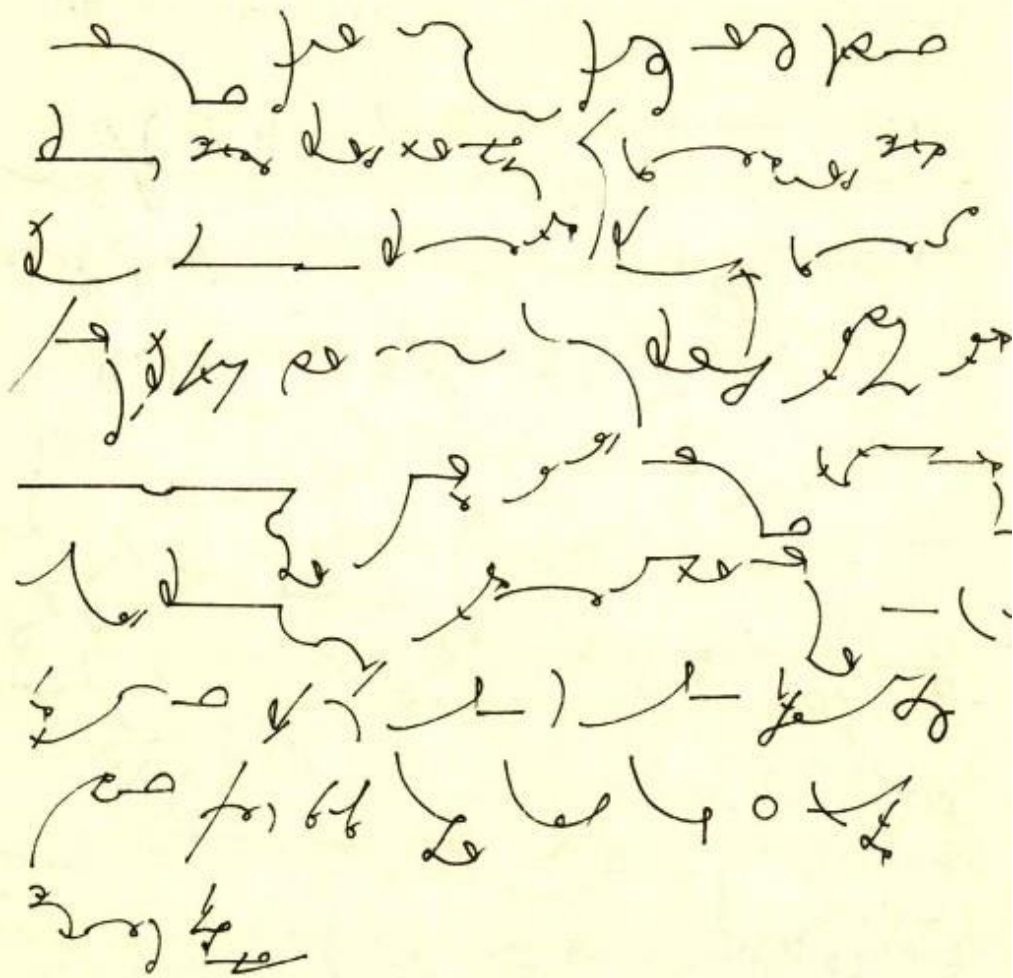
처음에는 이 기본만 가지고는 용지도 많이 들고 속도도 나지 않으며 한글보다도 쓰기에 더딘것이 사실이나 좀더 연습하면 빨라진다. 또한 점이나 ◦ 받침정도는 생략하는 방향으로 훈련하기 바란다. 속기문자의 띄어쓰기는 한글에서와는 달리 한 마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띄어쓰거나, 편의에 따라서 개인별로 습관화 시켜도 무방하다.

그리고 표준말 기법이 원칙이나 한글 표준 법과는 상당히 다르다. 속기문장을 쓰는 것은 말소리대로 써서 한글 맞춤과는 틀려도 그 속기원문을 번역할 때에는 우리 한글에 맞도록 정확히 써야 한다.



그리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써 그대로 사용하고, 속기의 생명은 쓰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번문을 하는데 생명이 있으니 자기가 쓴 문장을 틀림없이 번문하여 읽을수 있음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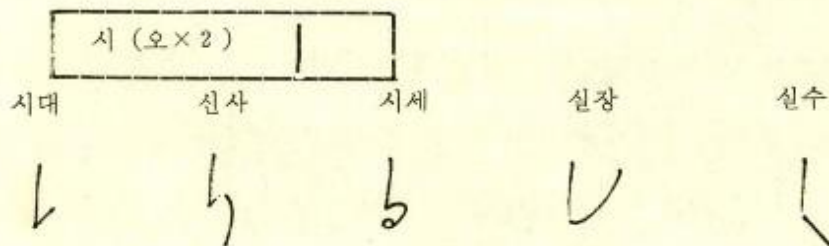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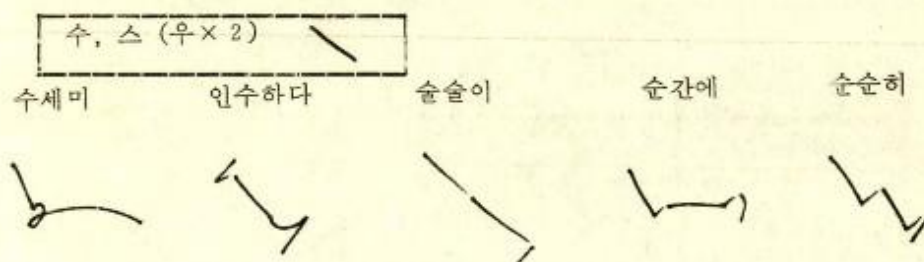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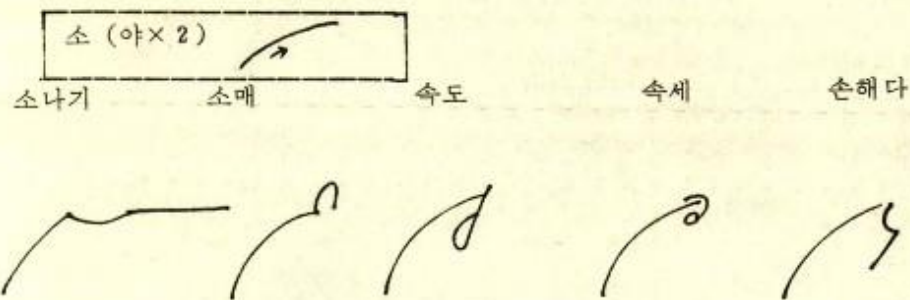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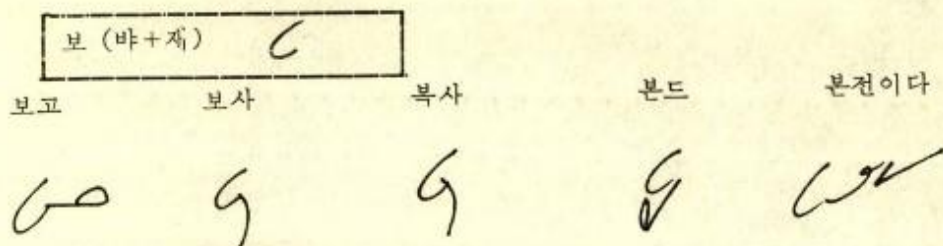
요는 얼마나 빨리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정확을 기하기 위 해서는 지금은 천천히 그리고 길이와 방향감각을 살려 차분히 쓰기 바란다. 중음문자가 있는 글씨는 “가, 바, 이” 임을 잊지 말고, 특히 “라” 줄과 “사” 줄과 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뒷면의 번자편 부터는 부점, 부호, ◦반침등을 생략하면서 익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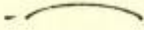


제 5 장 변자

: 변자라 함은 기본 문자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문자는 흔히 나오는 단어로 변형시켜 사용함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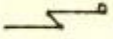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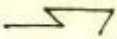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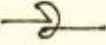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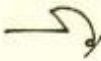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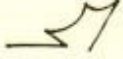
제 1 절 기본변자






그 (2 미리 빼침)

그가	그대	그미	그자	그저
				









근, 전, 권

근사	근거	근처에	건설	건강이
				
전전하다	사진이	권세가	권력이	권장하다
				

글, 그리 (갈)

글씨	글자	그리다	그리워
			

금, 김, 검 (검 / 2)

금은이다	금지	금새	금명간에
			
검산이	검찰청	검인	금잔디
			

제 2 절 상용변자

경, 경제 (겹) →

경시하다

경사가

시경

경건하다

경제가

경제난이다

경제학자

경제나

국, 격, 곡 →

국제

국제경제

국산

국민

-든, -던 →

가든말든

오던데

살든가

어떤

면, -면 →

면장

사면

액면

이면

연 (현), 여러분 →

연면이

현실

현상

자연히

현대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 3 절 상용 약자

그러, 그래 / (다)

그렇다	그렇다면	그래라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않으면	*그러나

이러, 이래, 이루. U(내)

이러나다	이루다	이렇다면	이륙

이것 0

이것이	이것은	이것을	이것과

그것 / (젠)

그것은	그것이	그것을	그것과

거기 / (젠)

거기에	거기가	거기라면	거기도

역, 여기
려, 려고, 니까, 에게

여기에	시력이	그에게	거기에가니까

(연습문장)

친애하는 기독교인 여러분,

본인이 오늘 이 엄숙한 자리에서 새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기 대된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국민 여러분께 전쟁의 위협, 빈곤 그리고 권력남용으로부터의 해방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 자유, 번영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데 가장 긴요한 것으로서 모든 기독교인을 포함한 전국민의 소망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국토가 분단된 채 호전적인 공산집단의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속에 살고 있습니다.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in Korean, consisting of several lines of notes and rests on a staff. The notation is written in a cursive style, typical of handwritten musical scores. It includes various note values, rests, and bar lines, though the specific notes and their durations are difficult to transcribe accurately due to the cursive nature of the handwriting.

따라서 우리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이겨야 하며, 이는 또한 기독교의 생존, 부흥을 위한 여건의 쟁취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인 여러분.

그간 우리가 지향해온 산업사회의 건설이 우리에게 어느정도의 물질적 성장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역시 인간소외, 인간성상실, 개인주의, 배금사상, 그리고 찰나주의의 만연 등 현대산업사회에 보편적인 빈곤의 문제에 새롭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 믿음, 소망, 사랑, ”의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 믿음, 소망, 사랑, ”의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신이야말로 우리의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 정의, 복지”의 정신과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기독교인 여러분.

서구의 민주복지국가가 기독교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형성, 발전되었듯이, 우리의 새 역사 건설을 위해서도 교회의 국가, 사회적 역할은 실로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국가적 생존권의 국리민복의 증진 그리고 사회의 올바른 정신문화의 배양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회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사명을 자각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의 어느 순간에 있어서나 위대한 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와 온 국민은 하나가 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정부와 교회, 그리고 교인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매진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국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선제하고 걱정해 나가는데 있어서 본인은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교계지도자를 비롯한 여러분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본인의 반려자이며 후원자가 되어 주실것을 특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국가와 교회의 발전에 하느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
 살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6 장 조사

어미에 해당되는 것을 제 3 절로 나누어 조사 약자로 만들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약자는 앞에 어떤 어간되는 문자나 주어되는 문자에 덧붙여 쓰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만 독립되어 쓰는 것도 몇개가 있다.

여기에 활용한 문자는 별도로 만들었거나 기본이 되는 원형문자를 사용하되 혼동되지 않도록 하였다.

조사로 쓰이는것은 토씨인조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치사 부사, 접속사, 접미사, 어미등으로 활용된다. 우리 국문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숙달되면 어려움이 없어진다.

제 1 절 1 음 조사

: 1 음조사 약자로 7 개를 만들었는데 예제를 보고 익히기 바란다.

1. 계 (계, 케) : 받침으로 즉 우 (ㄴ) 의 1/3 정도이다.

ㄴ (2 미리정도) 문자에 따라 ㄴ으로 쓰게 되나

원칙은 우하 ㄴ로 쓴다.

그렇게	이렇게	가게	오게
사게	자게	보게	올게

2. 는 : “ 는 ”에는 3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앞 문자의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

1) 앞문자가 삐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바로 우측에 점을 찍는다.

우리는 그는 여기는 거기는 넘는

2) 단선문자, 즉 원이없는 문자는 “ ㄴ ” 받침과 반대로 삐친다.

가는 오는 아는 기는

나는 여기에는 거기에는 도는

3) 원이 있는 문자일 경우에는 “ ㄴ ” (나는) 음 붙인다.

너는 노는 저는 거는

이제는 *이제나는 서는 어제는

3. 도 (-도, 토, 또,) : 원형문자 “ 디 ” 자를 사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2 미리 정도 짧게 팔라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나도	그도	우리도	그이도
여기도	저기도	여기에도	거기에도
또는	이래도	그래도	도저히

4. 로 : 두음법칙을 이용하여 “오”를 사용한다.

丨 (오) -로써, -로도, -로는등으로 활용될 것을 고려하였다.

그로	그로는	그로도	나로	나로는
ㄱ	ㄱ	ㄱ	ㄴ	ㄴ
거기로	여기로	저로	너로	여로
ㄱ	ㄱ	ㄱ	ㄴ	ㄴ

5. -은 : “-은”으로 받침 다음에 쓰이는 것으로 ㄴ(은) 자를 쓰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ㄷ(은) 받침만 쓰는 경우도 있다.

즉, 앞의 문자가 상향 (↗) 일때는 ㄴ(은) 자로 하향 (↘) 일때는 ㄷ(은) 만 쓰이 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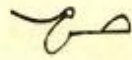
인간은	이런것은	그런것은	여러분은
ㄴ	ㄴ	ㄴ	ㄴ
산은높다	달은	그것은	일은
ㄴ	ㄴ	ㄴ	ㄴ

6. 을 : “ㄹ” 받침을 확대시켜서 ㄹ을 “을”로 사용되는 첫자로도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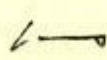
산을넘게	선을그어라	감을	신을
ㄴ	ㄴ	ㄴ	ㄴ
이것을	그것을	돈을	먼산을
ㄴ	ㄴ	ㄴ	ㄴ

7. 를 :원이 없을때는 ◦ (소원) 을 반대 방향에,
 ◦ (소원) 원이 있을때는 - (그) 를 표기함이 좋다.
 - (그)

나를보고



인가를



소를



인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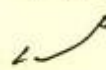
시도를



인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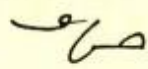
인지를



언어를



너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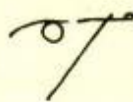
노를저어라



저를



모를것도



제 2 절 2 음이상 접속조사

1. -가지고 (\ 우)

그것을 가지고



-는



-도



-서



그래가지고



-는



-도



-서



2. -졌다. (\ 수)

보졌다



-는



-면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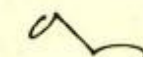
이러졌다



-는



-면



-고



3. -니까 (ㄴ ㄹ)

-에게

그러니까

-는

-도

-요

그이에게

-는

-도

-요

4. -께서

-께서 (ㄴ ㄹ)

여러분께서

-는

-도

-요

선생께서

-는

-도

-요

거기에 계셔도

-계셨다

-면

-니까

5. -대한 (ㄴ ㄹ)

그에대한

나에대한

이에대한

여기에대한

6. -때문

-때문에 (ㄴ ㄹ)

-기 때문에

그때문 (에)

-이다

-에도

-니까

이것때문 (에)

ㄷ

-이다

ㄷ

-에도

ㄷ

-니까

ㄷ

7. -려고 (ㄴ 려)

가려고

ㄴ

-는

ㄴ

-도

ㄴ

-요

ㄴ

살려고

ㄴ

-는

ㄴ

-도

ㄴ

-요

ㄴ

그것을 보려고

ㄴ

-는

ㄴ

-도

ㄴ

-요

ㄴ

8. -로써 (ㄹ 오 + ㅁ)

나로써

ㄹ

-는

ㄹ

-도

ㄹ

-라면

ㄹ

그로써

ㄹ

-는

ㄹ

-도

ㄹ

-라면

ㄹ

9. -면서 (ㅁ 모)

여기면서

ㅁ

그것이면서

ㅁ

오면서

ㅁ

올면서

ㅁ

*가면서

ㅁ

거기에게가면서

ㅁ

-도

ㅁ

-요

ㅁ

10. -부터 (ㅁ ㅁ)

-까지 (ㅁ ㅁ)

= 독립하여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부터

ㅁ

저기까지

ㅁ

몇가지

ㅁ

나부터 너까지

ㅁ

예외

끝까지

+

이때까지

ㄷ

몇가지

ㄷ

어디까지나

ㄷ

11. -에서 (ㄷ)

여기에서

ㄷ

-는

ㄷ

-도

ㄷ

-부터

ㄷ

그것에서

ㄷ

-는

ㄷ

-도

ㄷ

-부터

ㄷ

12. -으로

-므로 (ㄷ)

이것으로

ㄷ

-는

ㄷ

-도

ㄷ

-부터

ㄷ

그러므로

ㄷ

이러므로

ㄷ

보므로

ㄷ

자므로

ㄷ

13. -으로써

-므로써 (ㄷ)

이것으로써

ㄷ

-는

ㄷ

-도

ㄷ

-라면

ㄷ

그것으로써

ㄷ

-는

ㄷ

-도

ㄷ

-라면

ㄷ

그러므로써

ㄷ

-는

ㄷ

-도

ㄷ

-라면

ㄷ

14. -해서 (ㄹ)

그렇게해서

-는

-도

-요



그것으로해서

-는

-도

-요



이것으로해서

-는

-도

-요



이렇게해서

-는

-도

-요



제 3 절 어미조사

1. - 처럼 (ㄹ)

이처럼

이것처럼

그처럼

그것처럼



거기처럼

여기처럼

나처럼

너처럼



2. 하나 (ㅍ)

하나하나

하나가

하나에도

하나라도



그리하나

이러하나

그리하나

하나님



3. -든지 (단, 담)

- 던지

가든지

그랬든지

오든지

이랬든지

보든지

그렇든지

살든지

이렇든지

4. -더라도 (인, 임)

그렇더라도

이렇더라도

여기에오더라도

보더라도

알더라도 (알=랄)

울더라도

살더라도

먹더라도

5. -에 대해서 (바)

거기에 대해서

-는

-도

-요

그에 대해서

-는

-도

-요

여기에 대해서

-는

-도

-요

6. -대해서

-는데 (배)

그러는데

보는데

가는데

자는데

그러는데대해서

-는

-도

-요

7. -시키 (재)

일으시키

-다

-고

-니까

- 겠다

-든지

-더라도

-기 때문에

8. -시켜 (자)

너를시켜

-도

-라

-소

9. -주시 (애)

나를주시

-면

-면서

-니까

나를주시고

-다

-니

-므로

10. -주셔 (가)

그것을주셔

-도

-요

-다

＊연 습 문 제＊

우리들이 아직은 속도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상용문자나 여기에 나오는 조사 약자 같은 것이 당장에 우리 머리속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익숙하게 되므로 여기에 대한 우리의 기우는 차차로 없어지게 될것으로 믿는다.

그래도 아직은 이것만으로 가지고서는 미비함으로 여러분께서는 이제부터는 이제까지 배운 것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가지고서 연습하므로서 여기에서 소개되는 약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질것으로 믿는다. 그러기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배운것으로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없는것도 있는것 같이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할것을 나로서는 부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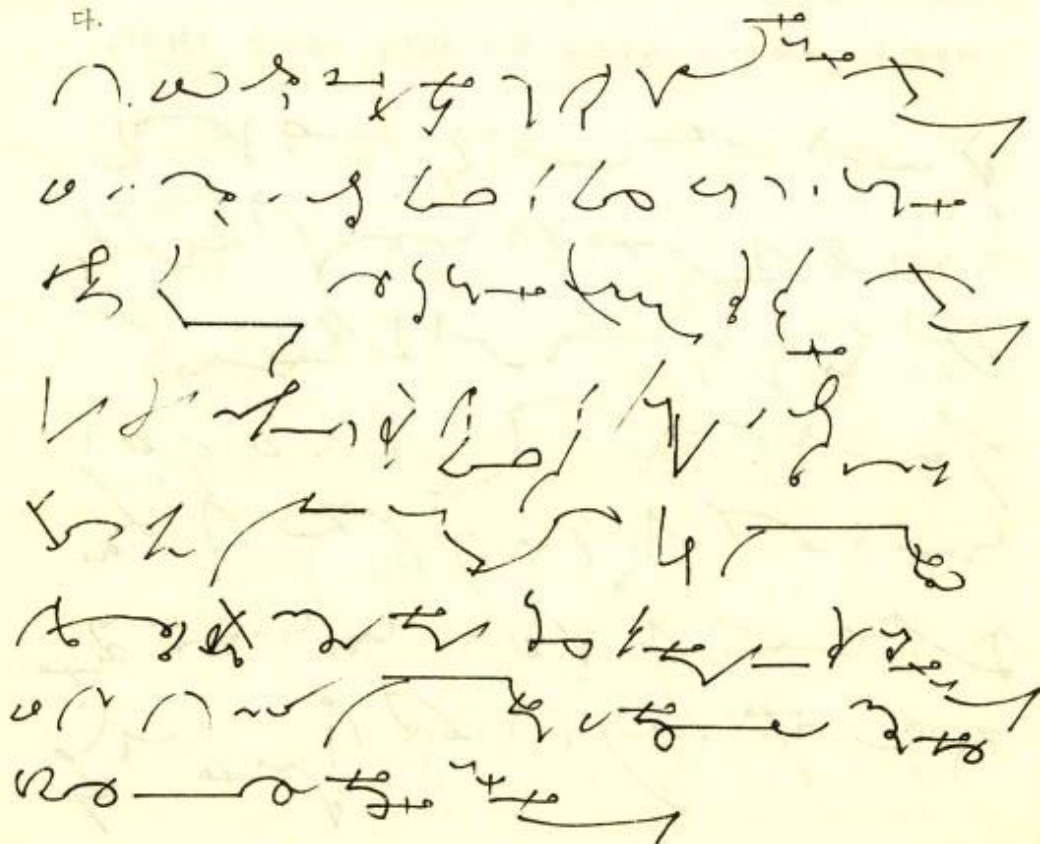
Handwritten practice text in Korean, consisting of several lines of cursive script. The text is a continuation of the printed text above, written in a fluid, connected style. It appears to be a personal note or a set of practice characters for the reader to learn.

여러분께서는 이제는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약자로 쓰여지는 것을 알것으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으로부터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서 이왕에 여기까지 배워온 것을 되도록이면 잘 쓰기 위해서 모처럼 애써 배운것을 빛나게 하는데에 대해서도 성의를 다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어떻든지간에 우리들은 열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이 조사편까지만 하더라도 익숙시키면 대단한 속도가 날수 있지는 신제로 약기법에 의하는 약법문자를 습득하므로써 어려웠던 것이라던지 애써가면서 익힌것이라든지가 석연하게 될것으로 압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원하던 속기법이란 이런것이로구나, 어려운 것이면서도 애매하면서도 기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것이라고도 여러분은 생각을 아니했을 것으로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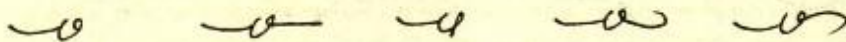


제 7 장 반침의 활용


: 반침의 활용이란 낱자의 음절이 연속일때 뒷자에서 일단 모음을 무시하고 자음을 모두 취하게 되는 즉, 반침의 활용범위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한것을 말하며 반침을 활용할때 모음중 각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음의 경우를 주로 사용한다. 예제를 보고 익히면 가능하다.

1. 제 1 절 : “ ㄱ ” 반침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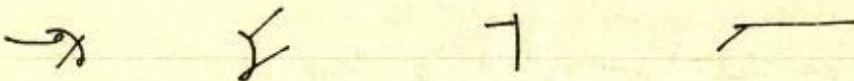
나그네 -가 -도 -는 -면



누구나(냐) -가 -도 -에 -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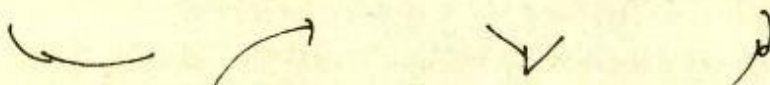
너그럽다 다가서다 깨끗이 태극기



더구나 야구장에서 고구려 고구마



바구니 소기의 수기로다 서구에서



2. 제 2 절 : “ㄴ” 받침 활용

거느리다	마누라	바느질	머느리
떠나가다	유능하고	무능하고	무너지다
지나치게	에누리	에너지	어느새
누나	누가	뉴스	누구나
늦었다	누구의	누구에게	느끼면

(활용 예문)

이렇게 크나큰 문제는 우리로써는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이제 머나먼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된다.

아주 가느다란 실마리를 잡고 세상을 산다.

허무하게 무너지는 성벽을 부여안고 떠나가버린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3. 제 3 절 : “ ㄹ ” 받침 활용

가라대 	걸어가고 	걸어가면서 	그리고
그리면서 	걸어도 	나라가다 	우리나라에서
내려가다 	다라나고 	따라서 	돌아서다
이자리에 	이자리에서 	이자리에서는 	이자리에서도
을지로 	-에서 	-에서는 	-에서도
흘러도 	흘러가면서 	흘러가는 	흘러서

4. 제 4 절 : “ ㅍ ” 받침 활용

교무실 	규모가 	나무가 	나무라다
노무자 	머무르다 	교묘하게 	너무나
무모하다 	무사하고 	무보수 	무시
무대에서 	목시로다 	목파하고 	목상하다

5. 제 5 절 : “ ㅂ ” 받침 활용

예비비 거부로다 아부하고 여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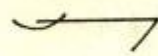


나부끼다

농부가

더부러

두부가



부	불	분	부분
、	、	√	√

부부가

부대장

부녀자

부정부패



부산에서

부친이다

부과세

부가가치세



불국사

불만이

불바다

불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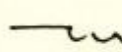


분명히

과분하게

분간하다

분수도



부분이

부분으로

부분에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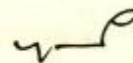


대부분

대부분이

예쁜데

아픈가요



제 6 절 : “ ㅅ ” 받침 활용

: ㅅ 받침은 다른 받침과 달리 단독으로 쓸 수가 없으며, 반드시 문자다음에 교차하므로 사용된다.

즉 ㅅ + ㅁ = 습, ㅅ + ㄴ = 슨, 슨, 선, ㅅ + ㄹ = 슬, ㅅ + ㅂ = 습.....
등으로 활용된다.

가슴이

노파심에서

의심을 가지고

야심이

노파심에서

서슴치않고

한숨을쉬다

안심하고

탈선하다

흔선을일으키다

무슨(모순)

무슨일이냐

무엇을

무엇이나

무엇때문에

무엇에도

자습을

자습해서

자습도

자습이니까

웃으면서

웃으니까

웃으면

웃어봐요

문제는 해방절에 대한 이해 여하에 있다.

이스라엘의 위대성은 역사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본데에 있다. 그들의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의한것으로 믿었다. 똑같은 역사적 해방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에 대한 이해는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는 과연 어떠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믿는 것일까? 그렇다면은 8.15해방절에 대한 우리들의 축제가 유대민족들의 유월절에 비길만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8.15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자세는 곧 한국교회의 신앙을 말하는 척도가 될것이다.

해방절 축제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그러나 감사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또 몇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 새로운 가치의 발견이다. 고기 냄비옆에 앉은 노예보다는 굶주린 자유인에서 민족의 생명을 되찾은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 창조에서만 역사의 의미를 발견하고 돌진하는데에 축제가 지닌 참 의미가 있다.

둘째, 축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회상이요 재생이다. 축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해방의 감격과 빈마음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해방되던 순간에는 아무도 부귀공명에 대한 욕심을 품지아니했다. 그저 하나님에게만 의존하고 찬미를 드리려 했다. 그러므로 참된 축제는 오늘의 타락에 대한 참회를 자아낸다.

۱-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۲-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۳-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۴-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۵-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۶-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۷-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۸-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۹-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۱۰-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۱۱-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۱۲-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۱۳-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۱۴-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۱۵-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۱۶-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۱۷-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۱۸-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۱۹-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۲۰- در این کتاب که در این باب

제 8 장 중등약기법

제 1 절 : “ 것 ” 약기법

자미 1 - 2 미리 안쪽에 교체하므로 생략된다. 그러나 ㄴ, ㄹ, ㅁ 등 2 미터정도의 받침문자 뒤의 “ 것 ” 은 받침내부에 적당히 표시한다.

또한 ㅅ 받침까지 활용되므로 “ 것 ” 은 거시(-것이), 거스(것으) 까지 겸하게 된다.

갈것은	-으로	-으로써	-이니까	-을
간것은	-으로	-으로써	-이니까	-을
알것은	-으로	-이나	-이면서	-파는
그런것은	-이	-에	-에도	-으로써
그럴것이	-도	-으로	-이나	-이면
이런것이	-은	-으로	-을	-에 대해서

* 연 습 문 제 *

생일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없었던 자기가 이세상에 존재하게 된 날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날 돌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 노예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다. 한민족이란 없는 존재와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어느날 전혀 우리가 예상조차 못하던 그때에 돌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이다. 한국민족이 비로소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것이다.

8월 15일은 한국의 생일이다.

모든 사람이 생일을 축하한다. 존재는 그 자체가 무한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해방절을 대대적으로 축하했다.

유월절은 한주간이나 계속되었다.

진정한 축제는 신의 은혜를 깨닫는 데에서만 일어나는 법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그들의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신에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며 감사의 축제를 올리었던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8.15의 해방절을 우리는 과연 민족탄생의 감격속에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 8.15를 해방기념일로 또는 광복절로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덧 축제도 제례도 아닌 한낱 연례행사로 화 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제 2 절 : 첩이약기법

1) 1음 첩자법 (“적” 자 위치)

: 1음 첩자라 함은 같은 소리가 겹쳐지는 것으로 “가가” “나나” “나나” “다다” “세세” ... 등을 말한다. 이때 1음은 같이 나타내는 경우 앞문자 자미로부터 좌하 (↙) 약 3-4 미리 정도에 위치한다.

이 자리는 “적” 자리로도 같이 쓰인다.

예) 가가	나나	다다	라라
가까이	강가에서	구구하다	누누히
모모하게	미미하고	사사로이	서서히
기적	-이다	-으로써	-적이다

개인적인 것과 단체적인 것이 이렇게 다르다.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좋다는 것이다

강제적이 아니고 희생적인 봉사다.

역적도 되고 여기저기도 된다.

* 2음이상 첩자법

: 두문자 이상인 경우가 반복될 때에는 20 미리정도의 선을 끝문자 중간을 잘라서 써준다.

간다간다	-하면서	-하고	-하네
어서어서	-오니라	-하자	-가라
아리랑아리랑	만세만세	아무리아무리해도 모르겠다	

제 3 절 : 문자위치 약기법

1) " 하(하는)" 약기법 →

그렇게 하고 -하며 -하면서 -하니까

--	--	--	--

이렇게 하고 -하며 -하면서 -하니까

--	--	--	--

그렇게 한 -것과 -것을 -것으로써

--	--	--	--

이렇게 한 -것으로 -것이다 -것으로 해서

--	--	--	--

그렇게 할	-것과	-것이다	-것이니까
이렇게 할	-것으로	-것이면	-것이기 때문에

* “-하는것”으로 활용될 때는 점을 찍고 그 위에서 뒷문자들을 이어쓴다.

그렇게 하는것이	-을	-은	-과
이렇게 하는것이	-을	-은	-으로써
보게 하는것도	-으로	-으로서는	-이며

2) “되, 데(되는)” 약기법

문자의 자미 바로 위에 (2 미리정도) 부정한다. 그러나 문자가 위에서 아래로 (↓↙) 내려올 경우에는 자두의 윗부분에서 사용한다.



가게되고	-며	-나	-므로	-면서

그렇게 되고	-며	-나	-므로	-면서
이렇게 된	-다면	-것이	-것을	-은
이렇게 되는 것이	-을	-은	-으므로	-도
그렇게 되는 것이	-과	-으로써	-이니까	-기 때문에
그렇게 될	-까	-때	-대로	-것이다

3) “-만, -지만” 약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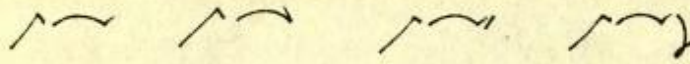
:문자의 자미 2미리 직하의 곳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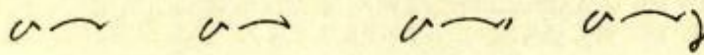
가만히	나만은	너만을	그만을
가만히	더많은	더많다	더많으니까
더 많으며	더 많고	더 많다는데	더 많소

* “-하, -되” 위치에서 ㄴ을 쓰므로 “-지만”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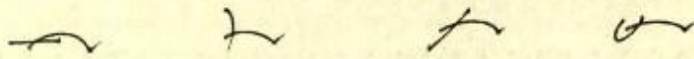
그렇게 하지만 -은 -도 -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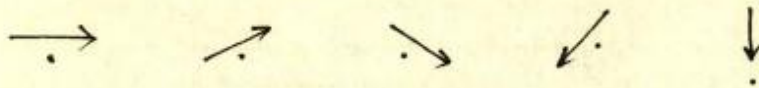
이렇게 하지만 -은 -도 -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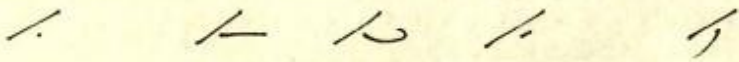
갔지만 살았지만 그랬지만 이랬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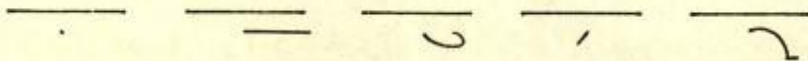
4) “ 회, 해, 가, 생각” 위치약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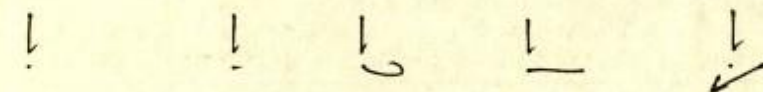
국회 -가 -는 -도 -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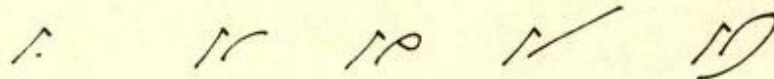
기회 -가 -는 -도 -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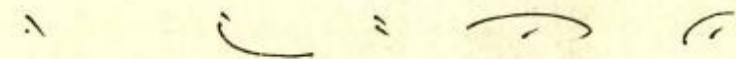
신화 -를 -는 -가 -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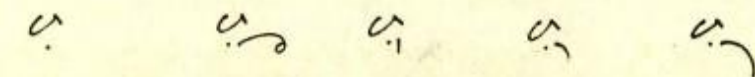
그렇게 해 -야 -요 -도 -야지



우리가 불가피 불가불 민간 연간



이렇게 생각 -하며 -하고 -하니까 -하라



제 4 절 장선약자

: 장선 약자라 함은 20 미리 정도를 사용하되 말이 일단 끝나고 쉬게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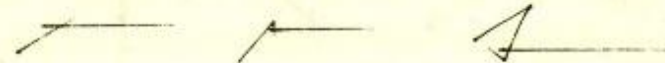
하나의 약자로 쓰이는 것보다 앞문자에 접속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1) ㅁ니다 (읍니다, 입니다)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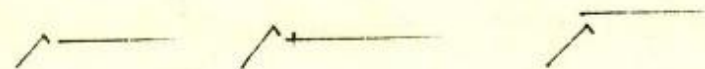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런것입니다 그럴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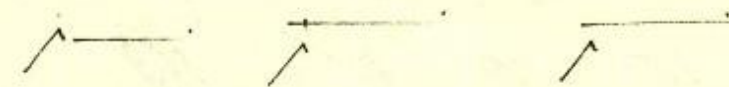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것입니다 잘한것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될것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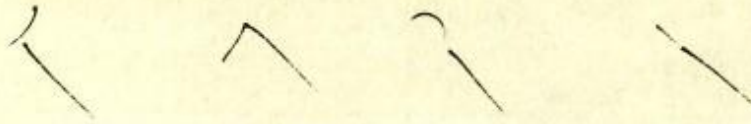


2) -겠읍니다

가겠읍니다 보겠읍니다 자겠읍니다 있겠읍니다



잘하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울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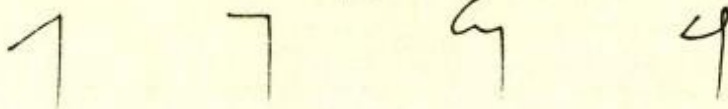


공부하겠습니까 그렇게되겠습니까? 공부잘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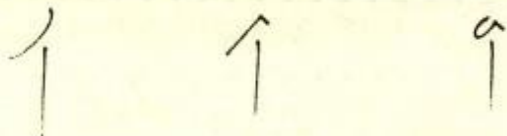


3) -습니다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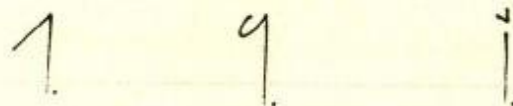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갔습니다 보았습니다 잊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했습니다 이렇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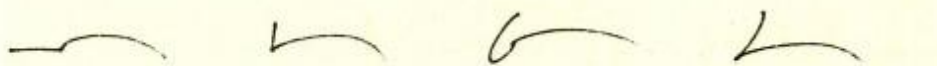


그렇습니까? 이렇게습니까? 공부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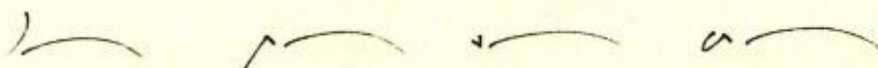


4) ㅂ시다 (=읍시다)

잡시다 읍시다 붓시다 잠시다



잘합시다 그렇게합시다 공부합시다 이렇게합시다



그것이읍시다 이것이읍시다 그런것이읍시다 이런것이읍시다



6) -도록 (-토록, -조록)

가도록

이제자도록

그토록

아무쪼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도록



7) -습니다

그것을 봅니다

그래봅니다

저기에 가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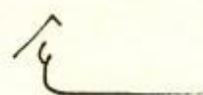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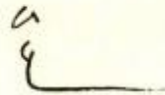
이것을 봅니까?



8)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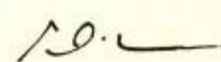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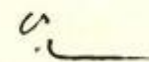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 -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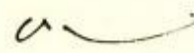
그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10) -나이다

그렇게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이까?



* 연 습 문 장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족정신을 드높여 새 조국건설의 힘찬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제 26회 현충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나라와 겨레를 위해 신명을 바치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며, 그 거룩한 희생과 높은 충절을 기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순국선열과 전몰군경 유가족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를 드리면서, 민족사를 수호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헌신할것을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굳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겨레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는 외침에 시달리며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헤치면서 자주독립을 유지하고 찬연한 민족문화를 꽃피워 온 의지와 슬기의 기록입니다.

우리의 핏줄에는 선인들의 이러한 빛난 얼이 뉘뉘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겨레가 이번 세기에 들어와 두 차례의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굵힐줄 모르는 민족정신이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식민주의의 압제하에서 우리 선인들은 조국광복의 일념으로 줄기차게 투쟁하였습니다.

또 민족사의 이단세력인 북한공산집단의 침략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의 애국청년들은 피흘려 싸웠습니다.

선열들이 보여준 이러한 충의정신과 호국의지야말로 우리의 5천년 민족사를 지켜온 국난극복의 저력이며, 새역사창조의 추진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수난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일깨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시는 외부의 침략과 도발을 자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무수히 받아들인 이민족의 침략,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6.25의 비극도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숙명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의 지정학적인 여건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거듭되는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분발과 새로운 도약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수난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부강하고 번영된 통일국가를 이룩하여 세계사의 진운에 적극 공헌할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라린 체험을 통해 얻은 역사의 교훈은 민족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지켜야 하며,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략을 당한 뒤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이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해도 그보다는 남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기전에 국력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열들의 유덕과 위업을 추앙하는 참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 9 장 고등약기법

제 1 절 “에” 이하 약기법

-에 의하여		-에 이르러		-에 거쳐	
-에 걸쳐		-에 대하여		-에 의거	
-에 관하여		-에 관해서		-에 관련	

나에 의하여	-여서	-여도	-여라

이것에 의하여	-여서	-여도	-여라

이것에 의한	-의해서	-의해	-의하면

거기에 이르러	여기에 이르러	여기에 대하여	여기에 거쳐

여기에 거쳐	-거쳐서	-거쳐도	-거쳐서도

거기에 걸쳐	-걸쳐서	-걸쳐도	-걸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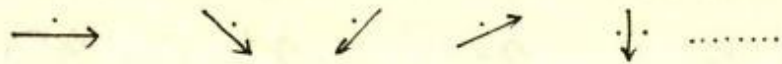
나에 대하여	거기에 대하여	여기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이것에 의거	-해서	-하면	-해도

나에 관한	-관하여	-관해서	-관련해서
여기에 관한	-관하여	-관해서	-관련해서

제 2 절 “ — 있어서 ”

문자 중간 2미리 위에 부점하므로 “ — 있어서 ” 라는 말을 생략한다.



너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그런데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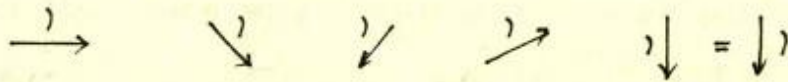
이런데 있어서



가는데 있어서



* 그러므로 “ — 있어서 ” 위치에 예 ()) 자를 첨가하여 “ — 에 있어서 ” 로 활용한다.



나에 있어서



-는



-도



-라



그에 있어서	-는	-도	-라
거기에 있어서	-는	-도	-라
여기에 있어서	-는	-도	-라

제 3 절 “ 서 ” 열 약기법

: “ 서 ” 열 약기법이란 “ -서 ” 를 다 쓰지 않고, 이미 조사에서 한번 이용된 바 있다.

즉, “ 서 ” 의 자미에 붙은 소원을 기본문자에 붙이는 소원과 반대로 붙여서 “ 로써 ” 나 “ 그래서 ”, “ 으로서 ”, “ 가지고 ” 등으로 쓰여진 바와같이 으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거기에 가서	개성	개성이	개성으로
타성	-이다	-이니까	-이기때문에
어디서	-라도	-든지	-든
맹서	-하고	-하면	-합니다

시설	-이	-도	-하면
아우성	-치다	-대다	-대니까
용서 (←용서←오서)	-하고	-하면	-합니까?

* 소원문자 다음에 "서"가 나오는 경우는 그 소원문자가 타원 문자로 변하면서 사용된다.

즉, → 을 말한다

너무커서	거성이다	구성을	구성하고
우겨서	거기에 넣어서(너서)얻어서(얻어서)		두서없이
이르러서	버서(벗어)	버섯처럼	버섯이
유서	성서(스위스)	정성	손을 다쳐서

제 4 절 “-있” 약기법

: 조사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 “있”을 약하여 쓰게 되는데, 자연히 “있으, 있어” 등까지 생략하여 활용하게 된다.

1) -고 있

* “-고 있”은 “-고 있으” “-고 있어” 등으로 활용.

가고있다 -는데 -으며 -으나

보고있다 -는데 -으며 -으나

그렇게 하고 있 -다 -으며 -읍니다

이렇게 하고 있 -는 -으니까 -읍니다

공부하고 있 -는 -어라 -읍니까?

2) -도 있

나도 있 -다 -으니까 -는데

여기도 있	-다	-고	-으면서
이것도 있	-을	-을 것입니다	-을 것이니까
그렇게 할수도 있	-을	-을 것입니다	

3) -에 있)

거기에 있	-고	-있으며	-읍니다
여기에 있	-고	-있으면	-읍니다

4) -이 있 /

* "-이" 와 뒷말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로 교차한다.

그것이 있고	-요	-면	-으니까
이것이 있고	-요	-면	-으니까

5) -가지고 있 \

그것을 가지고 있	-다	-고	-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	-으면	-으나	-으니

그런것을 가지고 있	-는 것이	-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	-으면	-읍니다	-어라

6) -가 있 -

* “-가 있”을 “개”로 쓴은 “가이→가 1→개”가 된것으로
쓰을 생략함.

거기에 가있	-고	-는	-으면

그럴수가 있	-다	-냐	-읍니다

이럴수가 있	-다면	-니	-읍니다

그렇게 할수가 있	-다	-으므로	-읍니다

이렇게 할수가 있	-으면	-으니까	-을 것입니다

* 연 습 문 장 *

새해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도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과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할만큼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겹치고 겹쳤읍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총화 단결해서 슬기롭게 이를 극복해 낸 한 해였다고 회고합니다.

국가안보상으로도 여러가지 커다란 위협을 받았고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우리 경제에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던져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북한공산집단의 도발상은 그 수법이 점점 더 악랄해졌읍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는 긴장완화니 또는 화해무드니 하는 소리가 팽배하게 떠돌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북한공산주의자들만이 완전히 이것을 외면한 채 그들이 늘 떠드는 소위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는 동족도 없고 부모 형제도 안중에 없고 목적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잔인무도한 짓들을 서슴치 않고 구사해왔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칠통같은 안보체제를 끝내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모든 도발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또 작년 연초에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식유 파동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몰아닥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임했고 작년 1월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만 1.14 긴급조치까지 발동이 되었습니다.

3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 → 들. 드리
- * ㅅ ㅆ ㅈ ㅊ ㅅ ㅆ ㅈ ㅊ
- * (ㅅ) ㅅ ㅆ ㅈ ㅊ
- * ㅅ ㅆ ㅈ ㅊ

그러나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인내로써 우리경제는 안정기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연말 현재 계획된 성장율을 이룩하였고 수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그동안 어려움을 참아주신 인내와 정부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새해의 인사의 더불어 뜨거운 감사와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은 작년에 못지않게 여러가지로 어려운 해가 되리라고 우리는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은 8.15 해방 광복 36주년이 됩니다.

또 6.25 동란 31주년이 됩니다.

북한 공산당들은 금년이 광복 36주년이요, 또 소위 그들의 "정권수립" 36주년이라고 해서 연초부터 여러가지 별의별 구호를 내세우고 지금 소란을 피우고 있는것 같습니다. 항상 모험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그들이 이런 시기에 또 어떤 군사적인 모험을 강행하지 않을까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와 경계를 해야될 줄 압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계 경제의 불황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공통된 견해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출과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로서는 여기에서 오는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비상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단단한 결의를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지고 이해를 맞이해야 되겠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점을 우리가 참고 이겨나가겠다는 마음의 준비도 돼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제 10장 연구 약기편

제 1 절 절반문자

: 주로 간음화 현상을 이용하여 좀 더 확대했으나 그렇게 광범위하게 쓰이지는 않는다.

즉, 어+이=에 (어/2) 음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고+이=오/2 이런식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고이” “노이” “도이” ... ㄱ ㄴ ㄷ ...로 쓴 것이다.

고이 노이 도이 로이 모이 보이 소이 요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위와 같이 나타내며, ㄴ과 ㄹ을 붙여서도 활용된다.

고인 노인 도인 로인 모인 보인 소인 요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예제)

고인이다

노인이

도의적이다

보인다

ㄱ

ㄴ

ㄷ

ㅅ

용의

용의가

용의는

고요히

ㄹ

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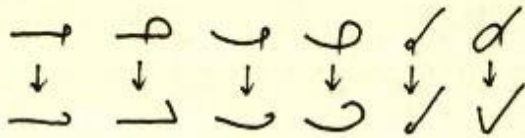
ㅂ

ㅅ

제 2 절 자미전개법

:소원 (ㅇ), 대원 (ㅇ) 뒤에 ㄹ이 올 경우에, 그 소원과 대원을 완전히 마무리 하지 않고, 즉 끝을 열어서 “ㄹ”이 포함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고 특수한 몇가지에만 사용된다.

즉, 걸 끝 낼 놀 덜 들 ……



예제)

걸어가다 낼다 놀아나다 노릇이다



더러는 도리 돌아서(도리틀) 무리로다



벌어지다 보류하다 여러개 여러가지



요리하다 유리한 즐지에 저런



제 3 절 부정약기법

:부정하는 방법으로 “-않” “-지 않” “-지 아니하” “안” “안되” “-지는 않” “-지도 않” 등을 약하는 것인데, 주로 소원(ㅇ)을 사용하나, “안, 안되” 들 “것” 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지 않 -고 -으며 -으나 -아도

오지 않 -고 -으며 -으나 -아도

그렇지 않 -고 -으며 -으면서 -으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을 -을 것이다 -을 것입니다

| | |
|------------|--|
| * 하지 않 | |
| 되지 않(지지 않) | |

그렇게 하지 않 -고 -으면 -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 -고 -으면 -습니다

| | | |
|----|----|---------|
| -는 | -을 | -을 것입니다 |
| | | |

그러나 앞문자에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지+않ㅇ=로 사용한다.

| | | | |
|------|----|-----|---------|
| 먹지 않 | -고 | -으면 | -을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살지 않 | -고 | -으면 | -을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가지 아니 | -하면 | -하니까 |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사지 아니 | -하면 | -하니까 | -할 것입니다 |
|-------|-----|------|---------|

| | | | |
|--|--|--|--|
| | | | |
|--|--|--|--|

* “안, -안되”는 “것” 방법과 같다.

| | | | |
|--------|-----|------|-------|
| 그렇게하지는 | -않고 | -않으며 |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이렇게되지는 | -않고 | -않으며 |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그렇게하지를 | -않고 | -않으며 | -않습니다 |
|--------|-----|------|-------|

| | | | |
|--|--|--|--|
| | | | |
|--|--|--|--|

제 4 절 위치활용법

1) “속, 이(리, 위) -수있” 위치약기법



위에 예시한 바와같이 “속” 자리는 문자 중간에 속해서 표시한다.

가속이 -도 -으로 -이다



상속이 -자 -으로 -하고



소속이 -은 -에서 -입니다



수속이 -을 -에 -은



시속이 -은 -으로 -과



* “속-” 자가 먼저 나올 경우에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1-2
 미리정도의 직선을 긋고 그 속에서 뒷말을 이어쓴다.

속기 속사 속상하게 속기사(속사)



* “ 이, 리, 위 ” 로 사용될 때

| | | | |
|-------|------|-----|------|
| 이것이- | -이니까 | -므로 | -입니다 |
| | | | |
| 달리- | -다 | -고 | -면서 |
| | | | |
| 알리- | -다 | -고 | -니까 |
| | | | |
| 그것을 위 | -해서 | -한 | -하여 |
| | | | |

* “ -수 있 ” 으로 사용될 때

| | | | |
|----------|----|------|------|
| 그렇게 할수 있 | -고 | -으니까 | -읍니다 |
| | | | |
| 이렇게 될수 있 | -고 | -으니까 | -읍니다 |
| | | | |
| 거기에 갈수 있 | -고 | -으니까 | -읍니다 |
| | | | |

2) “ -하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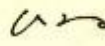

기법은 “ 하, 되 ” 위치에서 혼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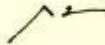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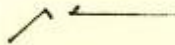
“ -되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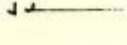
| | | | |
|---------|---------|------|--------|
| 그렇게 하여서 | 이렇게 하여서 | 잔되어서 | 보게 되어서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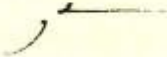
* 과거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ㅅ”의 일부분을, 즉 ㄴ “재”자의

절반정도를 쓴다.

| | | | |
|---|---|---|---|
| 이렇게 하였고 | -다 | -으며 | -읍니다 |
|  |  |  |  |

| | | | |
|---|---|---|---|
| 그렇게 하였고 | -다 | -으며 | -읍니다 |
|  |  |  |  |













| | | | |
|---|---|---|---|
| 공부하였고 | -다 | -으며 | -읍니다 |
|  |  |  |  |

| | | | |
|---|---|---|---|
| 잘 되었고 | -다 | -으며 | -읍니다 |
|  |  |  |  |

3) “ㄴ다” “한다” 위치 기법

:자미 우하 (ㄴ)로 4-5 미리 정도에 위치한다.

“ㄴ다”는 문자가 앞에 있으므로 사용되는데 “가”자를 쓰면 “간다”, “오”자를 쓰면 “온다”로 사용하며 “한다”는 그대로 “한다”가 된다.

| | | | |
|---|---|---|---|
| 잘한다 | 그렇게 한다 | 이렇게 한다 | 보게 한다 |
|  |  |  |  |
| 잘한다고 | -는 | -면 | -한다 |
|  |  |  |  |
| 공부한다 | -는 | -고 | -면 |
|  |  |  |  |

* “된다”는 “니다” 자리에 “ㄷ”를 쓴다.

| | | | |
|--------|----|----|----|
| 그렇게 된다 | -는 | -면 | -고 |
| | | | |

| | | | |
|--------|----|----|----|
| 이렇게 된다 | -는 | -면 | -고 |
| | | | |

| | | | |
|-----|----|----|----|
| 잘된다 | -는 | -면 | -고 |
| | | | |

4) “쓰다” 위치기법

:문자의 중간(수직선상으로) 5 - 10 미리정도에 위치하나 “가, 회, 해, 생각”과 혼용된다.

.....

| | | | |
|--------|----|----|-----|
| 거기로 갔다 | -고 | -면 | -니까 |
| | | | |

| | | | |
|--------|----|----|-----|
| 이렇게 했다 | -고 | -면 | -니까 |
| | | | |

| | | | |
|--------|----|----|-----|
| 나에게 왔다 | -고 | -면 | -니까 |
| | | | |

| | | | |
|---------|----|----|-----|
| 그렇게 되었다 | -고 | -면 | -니까 |
| | | | |

5) 받침의 혼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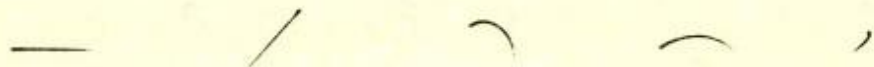
: 기본이 되는 원형문자에 다른 받침이 붙어도 별관계 없이 사용되는 경우인데

닌=님 산=삼 신=십



주로 그냥 써쳐서 되는 받침이 ㄱ과 혼용되는 것이 많다.

갈=각 달=다 (다고) 탈=락 (라고) 말=막 져=젝.....



자각 -하고 -하면 -해요



각각 -이다 -으로 -이면서



그렇다고 -하고 -하면 -하는데



이렇다고 -하고 -하면 -합니다



* 연 습 문 장 *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당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면서 결말을 상징하는 변화와 쇄신을 의미하는 자유를 축하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앞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거의 백팔십년 전에 정한바와 꼭 같은 엄숙한 선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많이 변모하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은 모든 빈곤을 극복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투쟁목표로 삼았던 혁명적인 소신, 즉 인간의 권리가 국가의 판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소신은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아직도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이 그와같은 첫 혁명의 후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혁명의 햇불이 새로운 시대의 미국 사람, 즉 금세기 중에 태어나, 전쟁의 단련과 더불어 차디차고 쓰디쓴 평화의 시련을 받았고 조상때부터 전해오는 유업을 자랑스러워 삼는 새 세대, 그리고 미국이 언제나 표방하여 왔고, 또한 오늘날에도 표방하고 있는 인권이 서서히 파멸되는 것을 묵과하거나 용서하지 않으려는 새로운 세대의 손에 넘어왔다는 것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친구들과 적에게 선언합니다. 미국에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이 자유의 보존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댓가라도 지불할 것이며, 어떠한 부담도 질 것이며, 어떠한 난관에도 직면할 것이며, 어떠한 친구라도 지원할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적과도 대결할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여 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정신적 조상을 같이하는 오랜 명망들에게는 신뢰하는 친구로서의 의리를 다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단결한다면, 협조로 이루어야 할 많은 모험적인 새로운 과업에 당면하여 불가능한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열한다면, 적의 생생한 도전을 감히 대항하지 못하여 산산히 부서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얼마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유 세계의 대열에 끼이도록 우리의 환영을 받고 있는 신생독립국가에 대하여, 한가지 형태의 식민통치가 보다 심한 철권의 전례로 대치되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언약합니다.

물론 그 국가들이 항상 우리의 모든 이념을 지지하리라고는 믿을 수 없으나, 그네들 자신이 스스로 자기들의 자유를 굳게 수호하며, 또한 과거에 보였던 바와 같이, 법을 타고 힘을 얻으려다 자신도 모르게 결국 호랑이의 밥이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기를 항상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러 지역에서 집단적인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싸우는 빈민과 촌락민들에게 대하여 필요되는 시일의 장단을 불문하고, 그들의 자조를 돕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을 원조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요, 또 피원조민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유 사회가 빈곤한 다수를 돕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부유한 소수마저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중에서)

제 11 장 동행생략법(동음생략법)

: 동행생략법이란 같은 줄 문자가 연속되는 경우 앞자, 또는 뒷자를 생략하고 쓰는 것을 말한다.

| | | | |
|-------|--|----|--|
| 즉, 저지 | | 너나 | |
| 더디 | | 거가 | |
| 소사 | | 용어 | |

다시말하면 앞말에 소원이 있으면 소원부터, 대원이 있으면 대원부터 시작하고, 그 문자는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앞문자에 원이 없을 경우에는 뒷문자를 생략하며, 뒤에 소원이 있으면 소원으로, 대원이 있으면 대원을 앞문자 반대방향에 붙여준다.

예를 들면,

| | | | |
|----|--|----|--|
| 과거 | | 지지 | |
| 지장 | | 시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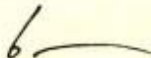


























* 양쪽 다 원이 없을 경우에는 대원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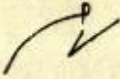









| | | | | |
|----|----|----|----|-------|
| 가가 | 나나 | 다다 | 라라 | 마마... |
| | | | | |

* ㄷ = ㅌ 음을 서로 같은 음으로 활용한다.

(예제)

| | | | |
|-----|-----|------|-----|
| 과거에 | 가잡다 | 가까스로 | 가까운 |
| | | | |

| | | | |
|---|---|---|---|
| 강권 | 경교 | 공교 | 경관 |
|  |  |  |  |
| 너나 | 나누어 (나뉘) | 노난 (논란) | 정당 |
|  |  |  |  |
| 다정 | 다정한 | 다정하게 | 다정합시다 |
|  |  |  |  |
| 정도, 정치 | 정치적으로 | 정치가 | 정치하면서 |
|  |  |  |  |
| 타당(당당) | 타당한 | 단아라 | 단아도 |
|  |  |  |  |
| 도전 | 대전 | 대체로 | 더디다 |
|  |  |  |  |
| 망망한 | 망망하다 | 망명이 | 미명하에 |
|  |  |  |  |
| 버반(법안) | 보버(보병) | 방편 | 보필 |
|  |  |  |  |
| 사서합 | 성신 | 성실 | 소상한 |
|  |  |  |  |
| 시선 | 시설 | 시사(상) | 소신 |
|  |  |  |  |

| | | | |
|---|---|---|---|
| 서산(청산) | 수선 | 소설이다 | 소송 |
|  |  |  |  |
| 여왕(영화) | 유연(영원, 염원) | 영혼(여튼) | 여우(여유) |
|  |  |  |  |
| 지저분하게 | 재정 | 차제에 | 정책(제출) |
|  |  |  |  |




제 12 장 십 원 법

:동글게 쓰는 법으로써, 문자앞에 “ 여, 요, 유” 등의 문자를 생략하는 방법인데, 몇가지만 특수하게 사용된다.

즉, 여자) 의 뒷글자 “자” 를 사용한다.
 용자)
 여지)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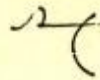
“가” 줄만 예외로 “가” 를 이용한다.

예제)

| | | |
|---|---|--|
| 여가(요가, 휴가, 나가) | 용감히 | —것인가 |
|  |  |  |

그렇게 할것인가

거기에 갈것인가 효과적이다



용납

요다음

요동(유동)

요동(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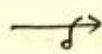


-인데

-것인데

거기에 갈것인데

볼것인데



요일(휴일)

여자(용자)

여지(유지)

은행



요즈음

우방(후방)

유전(휴전)

휴전선



제 13 장 역독법(역도법)

: 거꾸로 쓰거나, 거꾸로 읽는다는 뜻인데, 조금은 무리가 가는 듯 하나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다.

예제)

아는 → 는아 → 느냐 → 느냐

그러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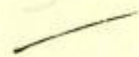
보느냐



던 → 디니 → 니디 → 니지 (→인지)

올것인지

알것인지



디는 → 는디 → 는지 오는지 보는지 그랬는지

| | | | | |
|-----|-----|--------|----|----|
| | | | | |
| 일시 | 잠시 | 즉시 | 난시 | 임시 |
| | | | | |
| -리라 | 그리고 | 복지(벽두) | 친구 | |
| | | | | |
| 현재 | 준비 | 군대, 근대 | 모두 | |
| | | | | |
| 평소 | 필수 | 혹시 | 긴급 | |
| | | | | |

제 14 장 상 단 약 기 법 →

: 주로 “어, 여, 저” 위치라고도 하는데 이는 흔히 속기문장을 쓸 때 한줄의 폭을 3센티미터 정도라 하면 윗부분 1센티미터 정도를 상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 “어”로 사용될때

| | | | |
|-----|-----|--------|---------|
| 어려운 | 어렵다 | (수) 없다 | (수) 없으나 |
| | | | |

(수) 없으며 (수) 없으니까 (수) 없읍니다 (수) 없을

.....

(수) 없다고 (수) 없이 (수) 없어 얼마

.....

원안(어난) 원인(어닌)

.....

2) “ 어, 혀 ” 로 사용될때

여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연 당연

.....

지연 자연(자원) 재연(재현) 기염(기념)

.....

경영 운영 환영(안영) 번영

.....

역사 역사상 역시 역설











.....

협상 협정 협력 협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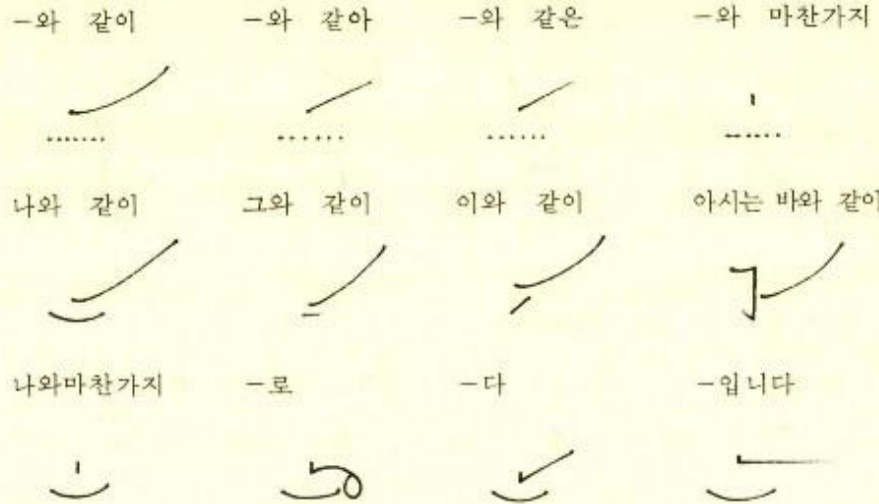
| | | | |
|---|---|---|---|
| 협동 | 협조 | 협약 | 위협 |
|  |  |  |  |
| | | | |
| 타협 | 개혁 | 형편 | 균형 |
|  |  |  |  |
| | | | |

3) "저(정)" 으로 사용될때

| | | | |
|---|---|---|---|
| 개정 | 결정 | 안정 | 배정 |
|  |  |  |  |
| | | | |
| 예정 | 인정 | 행정 | 정부 |
|  |  |  |  |
| | | | |
| 망정 | -지언정 | 신청 | 진정 |
|  |  |  |  |
| | | | |

제 15 장 실기 약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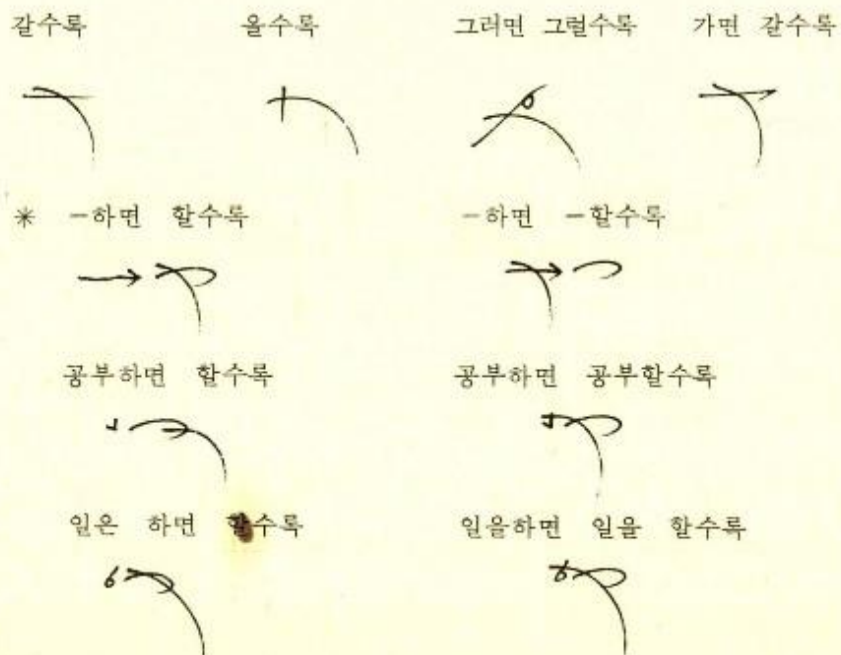
제 1 절 “-와 같” “-마찬가지” 기법



제 2 절 “-수록” 기법

“-수록”은 문장 중간에 변형된 “*록”을 교체하므로 사용된다.

예제)



* 연 습 문 장 *

다음은 경제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경제는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이후 처음으로 부의 성장을 기록하였을뿐만 아니라 높은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의 악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정치적 사회적 안정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 합심노력으로 안정기조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착실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1월부터 8월까지의 산업생산지수는 작년 동기에 비하여 9.6 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9월말 현재의 수출실적은 1백5십5억2천만불로서 금년도의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또는 원유 등 수입원자재의 가격 안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안정화시책의 추진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제성장율은 경기 회복세가 정착되고 추곡이 평년작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6 내지 7 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의 첫해인 새해의 경제시책의 방향을 안정기반을 계속 다져 나가면서 착실한 성장을 이룩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는 재정과 금융부문의 건실한 운영을 통해 통화량을 적절히 관리하고, 환율과 임금안정을 도모하며,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원가상승요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촉진과 생산성향상을 통하여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۱۰۰٪

۱۰۰٪ - ۱۰۰٪ = ۰٪

۱۰۰٪ - ۱۰۰٪ = ۰٪

۱۰۰٪ - ۱۰۰٪ = ۰٪

۱۰۰٪ - ۹.۶٪ = ۹۰.۴٪

۱۰۰٪ - ۱۰۰٪ = ۰٪

۱۰۰٪ - ۱۰۰٪ = ۰٪

۱۰۰٪ - ۱۰۰٪ = ۰٪

۱۰۰٪ - ۱۰۰٪ = ۰٪

۱۰۰٪ - ۱۰۰٪ = ۰٪

۱۰۰٪ - ۱۰۰٪ = ۰٪

۱۰۰٪ - ۱۰۰٪ = ۰٪

수입과 비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주요물자의 수급안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수출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새해에도 정부는 수출증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등 교역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수출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성향상과 품질관리의 강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길러 나가는 한편, 통상활동을 강화하고 연불수출과 해외건설을 지원하는 등 수출경쟁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여 국민경제의 능률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세제면에서도 조세감면제도를 재정비하고 건전한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의 기본수요 충족과 질적향상에도 계속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새해의 경제성장은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8퍼센트 내외의 성장율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는 제 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5차 5개년계획은 그동안 누적된 폐해를 제거하고 농불향상과 안정을 통해 80년대 제 2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1. $\frac{1}{x^2} = x^{-2}$
 $\frac{d}{dx} x^{-2} = -2x^{-3} = -\frac{2}{x^3}$
 $\frac{d}{dx} \frac{1}{x^2} = -\frac{2}{x^3}$

2. $\frac{1}{x^3} = x^{-3}$
 $\frac{d}{dx} x^{-3} = -3x^{-4} = -\frac{3}{x^4}$
 $\frac{d}{dx} \frac{1}{x^3} = -\frac{3}{x^4}$

3. $\frac{1}{x^4} = x^{-4}$
 $\frac{d}{dx} x^{-4} = -4x^{-5} = -\frac{4}{x^5}$
 $\frac{d}{dx} \frac{1}{x^4} = -\frac{4}{x^5}$

4. $\frac{1}{x^5} = x^{-5}$
 $\frac{d}{dx} x^{-5} = -5x^{-6} = -\frac{5}{x^6}$
 $\frac{d}{dx} \frac{1}{x^5} = -\frac{5}{x^6}$

5. $\frac{1}{x^6} = x^{-6}$
 $\frac{d}{dx} x^{-6} = -6x^{-7} = -\frac{6}{x^7}$
 $\frac{d}{dx} \frac{1}{x^6} = -\frac{6}{x^7}$

6. $\frac{1}{x^7} = x^{-7}$
 $\frac{d}{dx} x^{-7} = -7x^{-8} = -\frac{7}{x^8}$
 $\frac{d}{dx} \frac{1}{x^7} = -\frac{7}{x^8}$

7. $\frac{1}{x^8} = x^{-8}$
 $\frac{d}{dx} x^{-8} = -8x^{-9} = -\frac{8}{x^9}$
 $\frac{d}{dx} \frac{1}{x^8} = -\frac{8}{x^9}$

8. $\frac{1}{x^9} = x^{-9}$
 $\frac{d}{dx} x^{-9} = -9x^{-10} = -\frac{9}{x^{10}}$
 $\frac{d}{dx} \frac{1}{x^9} = -\frac{9}{x^{10}}$

9. $\frac{1}{x^{10}} = x^{-10}$
 $\frac{d}{dx} x^{-10} = -10x^{-11} = -\frac{10}{x^{11}}$
 $\frac{d}{dx} \frac{1}{x^{10}} = -\frac{10}{x^{11}}$

제 16 장 수 사 약기법

: 숫자 표기하는 것을 약기로 쓰는 것인데 아라비아숫자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속기문자를 약하는 경우도 있다.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1 2 3 4 5 6 7 8 9 10

* 속기문자 앞에 반드시 숫자가 붙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 | | | | |
|----|---------|-----|-----|----|
| 십 | 십(일십) | 이십 | 삼십 | 사십 |
| | | | | |
| 백 | 백(일백) | 이백 | 삼백 | 사백 |
| | | | | |
| 천 | 천(일천) | 이천 | 삼천 | 사천 |
| | | | | |
| 만 | 만(일만) | 이만 | 삼만 | 사만 |
| | | | | |
| 십만 | 십만(일십만) | 이십만 | 삼십만 | |
| | | | | |
| 백만 | 백만(일백만) | 이백만 | 삼백만 | |
| | | | | |
| 천만 | 천만(일천만) | 이천만 | 삼천만 | |
| | | | | |
| 억 | 일억 | 이억 | 삼억 | 사억 |
| | | | | |

예제)

백십오 이것을 백십오 이렇게 안쓰고 일만오 이것을 일만오 이렇게 안쓴다.

115 0 1 5 0 1 0 0 5 0 1 5 0 1 0 0 0 5 0 1 5

이십만십오 삼천만십오 삼천백육십삼 천오

2 15 3 15 363 15

* 부정수 약기법은 "적" 자 위치에서 이어쓴다.

즉, 일이 삼사 오육 칠팔 구십이다

. / . 3 . 5 . 7 . 9

예제)

이삼십 사오십 이삼백 오육천

2 4 2 5

칠팔천 팔구만 일이삼십 일이삼사오

3 8 1 1

제17 장 종합약자 및 특정문자

* “가” 줄 문자

| | | | | |
|------|--------|----|----|--------|
| 가정 | 간단, 과연 | 개월 | 가면 | 광주 |
| — | — | — | — | — |
| 걱정 | 구원 | 구호 | 구혼 | 가중(과중) |
| — | — | — | — | — |
| -거니와 | 강의, 과일 | 개연 | 개념 | 거의 |
| — | — | — | — | — |

거인 귀하, 기하 귀한, 기안 *북, 벽, 북 (갈)

— (((

기여 기염 기억 교육 기후

6 6 6 6 6

* “나” 줄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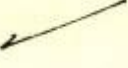




나와 나라 나무 너무 노력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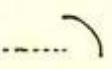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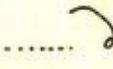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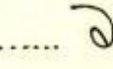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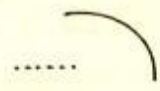




내용 논의 나타나

U U —









* “다” 줄 문자

| | | | |
|---|--|--|---|
| 도와, 통화
 | 동안, 또한
 | 다음은
 | 다음에
 |
| 두어-
 | 동원
 | 도무지
 | 도우-
 |
| 대단히
 | *듭, 듯, 뜻, 득, 더욱
 | 다시
 | 또다시
 |
| 당시
 | 당신
 | 더불어
 | *독, 도구, 동기
 |

* “라” 줄 문자

| | | | |
|---|---|---|--|
| 올라
 | 올려
 | 올려서
 | 올리
 |
| 의료, 이용
 | -라든지
 | -라든가
 | *혹, 목, 육(릴)
 |

* “마” 줄 문자

| | | | |
|---|---|---|---|
| 마당
 | 만일, 미안
 | 마음
 | 만주, 마주
 |
| 먼저
 | *-지 못하
 | *-지 못해
 | *지 못할
 |

| | | | |
|-----|-------|--------|-------|
| 마침내 | 만약(에) | *-말씀 | *-말씀을 |
| | | | |
| 명령 | 무효 | 모든 | 문제 |
| | | | |
| 민족 | 미국 | *문, 물론 | 물가오름세 |
| | | | |

* "바" 줄 문자

| | | | |
|--------|--------|-------------|---------|
| 우방, 후방 | 반영 | 포함(보람, 바람) | 변영 |
| | | | |
| 벌써 | 보호 | -보면, 보험, 보리 | 부인 |
| | | | |
| 부임 | 바위, 방위 | 방임, 방침 | 보이-, 포위 |
| | | | |

| | | | |
|------------|----------|----------|---------|
| 피양(평양), 평화 | *숙, 숙, 속 | *식, -시키고 | *피해, 발표 |
| | | | |

*집, 직, -지고 *죽, 죽, 측, 주고 *죽, 측, 쪽, 좋고, -고자

| | | | |
|----|----|----|----|
| | | | |
| 부여 | 부연 | 비용 | 숙명 |
| | | | |

* “사” 줄 문자

| | | | |
|--------|--------|---------|------------|
| 사용, 소화 | 소환 | 수여 | 선생, 선언, 선진 |
|) |) |) |) |
| 수요, 수효 | 소련, 소년 | 운동 | 수출, 수술 |
| ∩ | ⤿ | ↘ | ↘ |
| 수위 | 승인 | 신문, 심문 | 실시, 실정 |
| | |) | |
| 성의 | 소인, 소임 | 생활 | 스스로 |
| ∩ | ∩ | ∩ | ↘ |
| 시일 | 수입, 수저 | 사이, 상당히 | 상인 |
| | ↓ | ∩ | ∩ |

* “아” 줄 문자

| | | | |
|-------------|----------|--------|--------------|
| 아무 | 아무리, 아침 | 어떠한 | 어떻게 |
| — | ↘ | ~ / | ↘ |
| *을, 설, 절, 철 | *앨, 결, 별 | 의의, 이이 | 이유 |
| | (| ↘ | / |
| 이윤, 인민 | 유엔 | 여러가지 | 연구 |
| ↘ | 2 = 2 | ↘ | ↘ |
| 여러분 | 유효, 유용 | 유명 | 이해, 이행 *입, 렷 |
| ↘ | ∩ | ↘ | ↘ |

* “자” 줄 문자

자유, 좌우



자립



처음



중요



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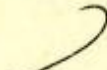
주장



충분



지나 지난



자신, 자인



저의, 정의, 가장



정신



*주의



주인



주일



중, 중



제 18 장 위치 약기법

제 1 절 “섭, 석, 섯” 기법

: 첫자로 사용될 경우에는 점부터 찍되, 나중에 나올 때에는 자미 2
 미리 안쪽에 교차하지 않고 붙여쓴다.

| | | | | | |
|-----|-----|--------|------|----|-------|
| | | | | | |
| 석가 | 석기 | 석다 | 석방하고 | 석수 | |
| | | | | | |
| 섭씨 | 섞어서 | 석자 | 석두 | 석교 | |
| | | | | | |
| 가셨다 | 보셨다 | -이 있었다 | 그랬었다 | | |
| | | | | | |

제 2 절 “점, 전” 위치 기법

: “석, 섭” 자리와 같이 앞, 뒤 모두 사용하되 2 미리정도를 띄워
 쓴다.

뒤에 나올 경우시는 “것” 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 | | | | | |
|----------|-----|-----|-------|--|-------|
| | | | | | |
| 전신이(점심이) | 점점 | 점점더 | 점차적으로 | | |
| | : | | | | |
| 그런점에서 | -으로 | -이 | -에도 | | |
| | | | | | |

| | | | |
|------|------|-----|-----|
| 기점으로 | 그점으로 | 발전이 | 이전에 |
| | | | |

제 3 절 “ 들(드리, 드러), 서(성) ” 위치법

:문자의 중간자리에서 사용되는데 “ ㅁ, ㅂ ” 의 받침활용을 좀 더 확대하여 사용하므로 “ 서, 성, 업, 법 ” 위치를 혼용한다.

| | | | | | |
|----------|-----|-----|------|--|-------|
| | | | | | |
| 가능성을 | -이 | -에 | -이다 | | |
| | | | | | |
| 달성 (따라서) | 알아서 | 반성 | 필요성이 | | |
| | | | | | |
| 실업자 | 실업율 | 졸업생 | 취업율 | | |
| | | | | | |

* 대부분 문장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 들, 들어, 들이, 드러 ” 등으로 사용된다.

| | | | |
|-----------|------|------|------|
| 거기에 들어- | -간다 | -가서 | -가면 |
| | | | |
| 내가 말씀 들- | -드린다 | -드려서 | -드리면 |
| | | | |
| 이렇게 말씀 들- | -드리고 | -드리니 | -드리면 |
| | | | |

* 연 습 문 장 *

전국의 교육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를 향하여 자신있게 가슴을 여는 개방사회를 착실하게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시대의 지향에 발맞추어 교육에서도 새로운 바람, 새로운 활력이 용솨음쳐야 할 단계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소아적이고 개체차원에만 머물러 온 지식습득위주의 교육에서 이제 우리는 과감히 전환하여야 하겠습니다.

후계세대들이 자신의 시야와 사색의 폭을 더욱 넓히고 내실을 더욱 굳게 다짐으로써 개방사회의 몇몇한 주인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은 오늘을 사는 기성세대의 막중한 책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룩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훌륭한 사회의 주인으로서 건실한 발전에 더욱 공헌하고, 훌륭한 국민으로서 국가의 융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또한 훌륭한 세계인으로서 인류의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위대한 세대가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을 위해 사과나무를 심는 충정으로 교육혁신에 모든 정성과 슬기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제 5공화국 헌법에 평생교육조항을 명문화하고 교육혁신을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육혁신은 단지 시설확충에 그치는 일이 아니며, 명실상부한 전인교육의 시행으로 교육의 질적 전환을 이룩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후계세대들을 중흥의 새 민족사를 엮어나갈 주인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지. 덕. 체를 겸비한 전인완성의 교육을 주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이 될 젊은이들의 창조적 지혜로 가득차고 도덕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그리고 자아실현을 통하여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될 때 우리가 지향하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는 더욱 튼튼한 기반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이 새로 교육세를 부담하게 된것은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전인교육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과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을 바로 잡고 내실화하기 위한 교육자 여러분의 사명감과 정성어린 노력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육의 주체는 바로 교육자 여러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고도산업사회, 대중교육시대에서 모든 교육자에게 지적,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사표가 되어 주기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안이하게 편승하여 교육자 여러분이 제자로부터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스승이기를 포기하고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한낱 기능인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육자 여러분은 꾸준한 자기혁신을 통해 새시대의 새 교육사상을 정립해야 할 일차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인간적 이해와 신뢰가 그전제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사제간에 인격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만이 근래 퇴색해 가는 사도를 밝히고 약화된 교권을 확립하는 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한편 스승과 제자 사이에 사랑과 존경은 오가되 학문적, 도덕적 엄격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사제간의 아름다운 정리가 학생들에 대한 인기영합으로 둔갑해서도 안될 것이며, 도덕성의 추락으로 변형되어서도 안될것입니다.

본인은 뜻깊은 오늘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교권과 사도의 확립을 위한 교육자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을 호소하면서 내일의 밝고 살기좋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내실있는 전인교육 실시의 분위기가 조속히 조성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교육을 천직삼아 지금 이시각에도 새 세대를 길러내는 데 땀흘리고 있는 전국의 교육자 여러분의 노고를 거듭 치하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وہاں پہلے سے ہی لکھا

() میں جو ہے وہ ہے

کے لئے ہے

جس کے لئے ہے وہ ہے
جس کے لئے ہے وہ ہے

ہو

جس کے لئے ہے وہ ہے

جس کے لئے ہے وہ ہے

جس کے لئے ہے وہ ہے

جس کے لئے ہے وہ ہے

جس کے لئے ہے وہ ہے

綜 合 編

新 自 編

I . 새時代는 새로운 覺悟와 決意로

國民經濟發展의 核心分野에서 重責을 맡고 계신 金融界人士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오늘 財務部長官의 立場보다 經濟를 專攻한 한 사람으로 國民의 位置에서 平素 생각해오던 몇가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意見을 듣고자합니다.

우리는 지금 第5共和國, 새時代를 맞아 希望의 첫 발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이 轉換期的 새時代는 새로운 經濟觀과 經濟秩序를 要求하고 있습니다. 正義로운 民主福祉經濟의 建設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泰山같습니다. 正義가 支配하는 豊饒한 社會를 이룩하여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遺産을 우리 後孫에게 물려주어야겠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같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共通된 念願일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와같은 念願을 實踐에 옮기기 위하여 우리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智慧를 짜내고 方向을 새롭게 設定해야하는 段階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障礙要因은 무엇이고, 기필코 成就시켜야 할 目標은 무엇이며,

그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論議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實踐과는 거리가 먼 口號만을 외쳐가며 形式에만 치우치는 方法으로 展示效果를 노리는 思考方式과 行動은 삼가하고 內容의 充實을 期하고 結果에 對한 責任의 所在를 分明하게 하여야겠습니다. 이 나라의 經濟를 發展시킴에 있어서도 우리는 더욱 眞摯하게 過去를 反省하고 經驗에서 얻은 善 知識으로써 國民和合의 指針을 삼고 經濟建設의 밑거름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한 해 동안은 6.25 動亂 以後 가장 危險하였던 激動期였다고 생각합니다. 밖으로는 第2次 油價引上의 衝擊과 輸出의 低調, 안으로는 새歷史의 方向과 理念的·制度的 性格에 관한 見解의 差異로 인하여 우리 國民間에 심한 葛藤을 露出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經濟政策面에서도 短期的 安定과 正常化에 主眼點을 두고 方向을 잡을 수 밖에 없었으며, 자연히 폭넓은 對話를 통하여 우리 經濟의 方向과 우리가 追求해야 할 理念에 관해 생각을 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渦中에서 經濟政策은 長期的 眼目에서 餘裕있는

計劃과 執行을 期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 率直한 實情 이었습니다. 國民生活의 不便을 優先的으로 덜면서 經濟의 安定基調를 維持하고 아울러 短期的인 國際收支防禦에 專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 앞을 내다보기조차 어려웠던 混亂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産業이 입은 打擊과 苦痛은 바로 前例없는 마이너스經濟成長으로 나타났으며, 經濟政策을 펴나가는 우리는 勿論 國民全體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던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순간 그 惡夢과 같은 混亂과 破局直前의 危機를 過去之事로 돌리고 새로운 覺悟와 決意로 第2의 跳躍을 떠맡은 金融人으로서의 使命感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것입니다.

全斗煥大統領閣下의 領導아래 第5共和國으로 向한 制度的 裝置가 確固하게 마련되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將來에 대한 밝은 展望과 確信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침착하게 쟁길 수 있는 餘裕있는 惝恍속에서 가슴의 門을 활짝 열어 80年代 우리經濟의 進路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찌기 經驗하지 못했던 큰 試鍊으로

우리經濟는 60年代以後 持續되어왔던 成長이 一時的이나마 中斷되었고 國民의 物質的 生活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經濟政策의 基本方向과 施策에 관하여도 巷間 一部에서는 약간의 疑懼心과 意見의 엇갈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基本課題인 民間主導型 開放經濟體制의 理念的 根據와 그 基本方向에 관하여 아직도 一致된 見解가 形成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經濟의 發展과 安定을 위한 經濟政策은 國民의 大多數가 그 基本方向을 充分 理解하고 이 理解를 바탕으로 한 統一된 國論이 形成되어야만 成功的으로 執行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至上目標인 産業民主主義와 福祉經濟의 建設도 達成할 수 있다고 봅니다.

Ⅱ. 經濟安定을 爲한 共同理念의 形成

무릇 現代社會의 經濟行爲는 集團行爲입니다. 따라서 社會構成員 各者의 經濟的 目標과 이를 達成하고자 하는 努力이 相互補完的 方向으로 展開될 때 그 社會는 더욱 發展하게 됩니다. 反面에 構成員의 에너지가 相互 相殺되는 方向으로 經濟行爲가 展開될 때 그 社會는 資源과 能力의 浪費로 인하여 經濟發展을 達成할 수 없고 심지어는 激動과 不安의 犧牲物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論理的 必然性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人間이기 때문에, 즉 遺傳的 本能을 超越하여 推理와 創造를 할 수 있는 唯一한 存在이기 때문에 人間集團이 經濟生活를 營爲하여감에 있어서는 個人相互間의 利害와 理念의 衝突은 不可避하게 되어왔습니다.

이와같은 安定的 條件과 創造의 條件間에 介在하는 論理的 二律背反性을 宿命的으로 지니고 살아온 人間集團은 그러면 이 根本的 問題를 어떻게 解決하여왔습니까? 나라와 民族에 따라서 또 時代에 따라서 이 問題를 풀어 온 結果가 여러가지 興亡盛衰를 招來하였음을 우리는 歷

史속에서 보아왔습니다. 한 王朝에서 다음 王朝로 넘어가는 過渡期下の 中國大陸, 4世紀 前後의 로마帝國, 가까이는 14世紀頃の 日本의 戰國時代에서와 같이 社會的 混亂이 長期間 持續되면 蓄積된 社會資源이 大部分 戰爭이나 破壞를 위하여 使用되고, 擴大 再生産은 커녕 社會構成員의 生存權 마저 危脅當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社會에서는 混亂과 搾取가 茶飯事로 되어왔기 때문에 Thomas Hobbes가 指摘한 “萬人 對 萬人의 鬭爭”이라는 非生産的 社會로 歸着되었던 것입니다.

反面에 秩序와 安定을 靜態的 概念으로 取扱한 社會, 다 말할하면 秩序의 要件을 同和性 보다 劃一性에서 찾으려는 社會에서는 人間意志의 主體性을 無視한 나머지 推理와 創造의 意慾이 抹殺當하고 繼續적으로 變化해가는 精神的·物質的 環境에 適應할 수 있는 能力을 剝奪當하게 됩니다. 社會構造와 理念을 靜態的·劃一的 秩序에 바탕을 두는 體制下에서는 全體主義國家에서 흔히 보는 바와 같이 人間의 過去는 勿論 未來까지도 특정한 歷史的 “法則”이라는 틀속에 넣어 說明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人間의 宿命的 問題를 어떻게 解決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解答을 求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 나라의 制度와 生活原則에 反映시키는가 하는 點은 바로 우리의 未來를 어떻게 엮어나갈 것인가를 決定짓는 重要한 問題라고 봅니다.

社會安定은 本質的으로 個個人 相互間의 人間關係에서 相對方의 行爲를 미리 豫測할 수 있을 때 發生하는 現象입니다. 行爲의 豫測度를 높이기 위하여 人間社會는 宗教, 權威 或은 禁忌와 같은 準據를 發想하기도 하였으며, 法律을 制定하고 經濟體系를 發展시켜 團體行爲의 秩序를 維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生存을 營爲할 수 있는 物質的 條件이 同一하다면 創意力의 發揮는 한 人間이 다른 人間으로부터 制約을 받지않고 自由意思를 驅使하여 생각하고, 實驗하고, 實踐할 때 極大化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安定과 創造의 均衡을 理想的으로 이루기 위하여는 外部에서 加해지는 行爲의 拘束보다는 人間自身이 內實化하는 價値觀과 準據가 汎社會的이고 共通的으로 認定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우리들 스스로가 正當하다고 認定하는 共同理念이 存在할 때 安定과 創造의 理想的 條件이 비로

서 形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經濟活動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經濟活動의 準則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모든 經濟單位가 이를 自發적으로 遵守할 때 그 社會는 經濟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所要되는 資源과 時間을 最少化할 수 있고 價値創出의 不斷한 試圖가 盛行되는 것입니다.

多數意思에 順應하는 姿勢必要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共同理念을 찾아야합니까? 우선 우리가 銘心해야 할 것은 共同理念의 內容自體에 관한 뜻 있는 合意를 보려면 그 內容을 定立하는 方法, 즉 共同理念 定立의 節次에 관한 合意가 앞서야합니다. 內容自體에 관한 合意를 일단 이루어놓았다 하더라도 그 後에 發生하는 環境의 變化가 要求하는 새로운 共同理念을 發展시키지 못한다면 그 內容은 지나가버린 時代精神에 固着되어 다시 社會葛藤의 原因이 되고합니다. 따라서 共同理念 定立에 관한 問題는 結局 그 節次를 支配하는 共同理念을 어떻게 定立하느냐는 方法上的 問題로 歸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前提下에 저는 몇가지 有機적으로 連結된 命題를 가지고 共同理念 定立에 관한 우리의 姿勢를 提案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靜態的·決定論的 世界觀이 提示하는 事前論理를 宿命的으로 따르려하는 모든 價値觀을 排除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1) 經驗과 試行 錯誤를 통하여 얻어진 知識을 바탕으로 하여 여기에 推理力을 加味하고 (2) 우리民族의 時代的 特殊性과 傳統에 立脚하여 우리가 理想으로 삼는 未來觀을 다같이 찾아내고 (3) 流動的으로 展開되는 國際環境을 把握·豫測하여 機敏하게 行動할 수 있는 開放된 意識構造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國民間에 發生하는 見解의 差異, 利害의 葛藤, 現實에 관한 認識의 差異 그 自體를 두려워할 必要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러한 葛藤은 自然的으로 發生하는 것이며 發展의 原動力이 될 수 있음을 認定하고 그 葛藤이 建設的으로 그리고 公正하게 解決될 수 있는 精神的 與件을 造成해야겠습니다.

셋째로, 思考의 自由를 濫用하지 않아야하겠습니다. 우선 한 사람의 自由行使가 他人의 自由를 妨害해서는 안되며 思考를 行動化하기 以前에 他人의 自由를 制約하지 않도록 深思熟考하는 責任感과 自制力이 培養되어야만 위에서 말

썸드린 自由로운 社會의 存続이 可能합니다. 自制力에 立脚한 責任意識은 創意力을 極大化할 수 있는 社會秩序의 根幹인 同時에 分離할 수 없는 要件입니다. 個人이 自己의 생각이 옳다고 確信할 때는 論議過程에서 이를 說得力있게 主張하여야 하고 일단 한 問題에 관하여 團體意思가 決定되었을 때는 多數의 確信을 받아들이고 그 決定의 成功的 遂行을 위하여 協同하여야만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處해 있는 歷史的 時點에서 보면 民間主導型의 經濟體制를 構築한다는 目標은 바로 經濟的 民主主義를 確立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政府主導型의 經濟體制를 特定한 民間企業體 그룹이 支配하는 經濟體制로 轉換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經濟的 民主主義는 政治的 民主主義의 前提條件으로서 우리社會의 安定과 發展을 위해 이 時代가 要請하는 重要な 目標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 提示한 세 가지 原則을 單純한 哲學的 一般論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그 原則을 우리의 責任分野인 經濟問題 解決에 도움이 되도록 適用해야만 할 것입니다.

Ⅲ. 經濟開發戰略의 回顧와 教訓

(1) 經濟開發政策이 우리에게 물려준 遺産

한 나라의 經濟政策을 樹立함에 있어서 가장 重要的 要素의 하나는 過去의 經濟政策을 分析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는 우리가 過去에 積立해 온 制度와 慣行을 固定시키자는 守舊主義的 動機에서가 아니고 改革의 趣旨를 더욱 有效하게 反映시키기 爲해서 입니다. 現在가 依支하고 있는 基盤을 分別없이 무너뜨리는 過激한 改革을 拙速하게 試圖할 때에 엄청난 代價를 支拂해야 했던 事實을 우리는 歷史를 통하여 累次 보아 왔습니다.

그러면 民主福祉國家를 다져나가고자 하는 마당에 우리가 마땅히 考慮해야 할 過去의 遺産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過去에 成長指向的 經濟開發을 해 왔습니다. 慢性的 失業, 絶對的 貧困, 國際競爭力의 脆弱性, 急激히 膨脹하는 人口, 그리고 國家의 安寧守護에 必要한 資源調達과 같은 根本的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오로지 成長만이 우

리가 扞할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世界史에서 흔히 볼 수 없는 高度成長이라는 第1次的 目標을 達成하여 지난 18年동안 人口가 千萬가 가까이 增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個人當 平均實質所得을 4倍以上 增加시켰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모든 經濟問題를 解決하지는 못 하였습니다. 아직도 絶對貧困이 部分的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며 雇傭과 國際競争力을 改善해야 할 餘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比較經濟的 視野를 넓히지 못한 채 우리 自身을 너무 自虐해서 는 안됩니다. 지나간 20年동안 절반以上の 新生開途 國에서는 實質所得과 平均消費가 오히려 減少하였습 니다. 더욱이 社會主義 天國을 建設하겠다고 나섰던 世界의 二大資源國인 蘇聯과 中共에서는 人間의 物質的 生活條件이 별 進展없이 제자리걸음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成長指向的 開發政策은 政府主導型이었으며 必然的으로 不均衡成長이 不可避하였습니다. 開發의 初期에는 民間部門의 經營力과 資本이 脆弱하였기 때문 에 政府는 産業化의 根幹을 이루는 프로젝트를 찾아

내어 公共貯蓄을 통하여 集中投資를 해왔고 자연히 投資의 豫想效果가 뚜렷이 눈에 보이고 그 迂迴度가 짧은 施設부터 開發해왔습니다.

政府主導型的 膨脹為主政策은 또한 生産施設 擴大爲主의 經濟政策이었습니다. 輕工業部門을 先頭로 投資의 對象을 生産施設擴大에 集中하고 社會間接資本의 蓄積을 圖謀하였으며 특히 1970年代에는 大單位 製造業施設, 電力供給施設의 계속적 擴大등 資本集約的 投資政策이 되었습니다. 1960年代를 통하여 世界經濟의 與件이 有利하게 展開되어 世界經濟는 急速한 貿易伸張率을 나타내었고 에너지의 相對價格이 低廉하였기 때문에 이같은 生産施設의 擴大는 그 妥當성이 充分히 認定되었던 것입니다.

1960年代 以後 계속적으로 推進해온 對外指向的 經濟政策은 賦存資源의 缺乏과 國內市場의 狹小性和 같은 絶對的 與件을 考慮해 볼 때 妥當하였던 戰略으로 評價받고 있습니다. 高度成長에 必要한 資本과 技術의 蓄積이 너무나 不足하였기 때문에 外資導入등 海外貯蓄에 依存하여 完全雇傭의 效果를 노리고 勞動生産性을

向上升기려는 戰略이었읍니다. 돌이켜보면 1960年代 當時의 형편에 비추어 導入된 外資를 充分히 消化시킬 수 있는 經營能力과 現代的 生産過程에 必要的 技術習得力의 保有與否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確實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當時의 判斷은 實證的으로 내려진 것은 아니었읍니다. 우선 目標를 設定해 놓고 安定된 社會的 雰囲気下에서 모든 經濟單位가 合心努力한 結果라고 볼 수 있읍니다.

1970年代에 들어와 우리經濟는 몇차례의 試鍊을 겪었읍니다. 이러한 試鍊은 内部發生的인 構造的 問題라기보다는 世界經濟에 닥쳐온 몇가지 不均衡의 餘波이었읍니다. 70年代 初期의 世界的 景氣後退는 食糧을 비롯한 原資材價格의 急騰으로 인하여 發生하였읍니다. 또한 世界通貨로서의 「달러」의 位置가 動搖되어 第2次大戰以後 계속 世界經濟秩序의 根幹이 되어온 「브레튼-우드」體制가 흔들리고 經濟的 多元化 體制가 나타난 것도 이 時期였읍니다.

이로 인하여 新生開途國의 經濟的 民族主義가 더욱 表面化되었고 國際貿易과 經濟秩序는 새로운 適應을 하

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었읍니다. 이러한 情勢變化에 對應하여 우리는 當時 絶對農地를 宣布하였고 輕工業為主에서 脫皮하려는 目標下에 73年 以後 重化學建設을 推進하였읍니다

따라서 經濟活動은 大企業中心으로 展開되어왔던 것입니니다. 한편 産業化가 成功的으로 推進됨에 따라 都市와 農村間의 所得隔差가 發生하고 이를 解消하기 위하여 農産物價格의 二元化를 實施하게 되었으며 人口는 계속 都市로 集中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公共投資를 통한 住宅建設은 農村에서 크게 盛行하였읍니다.

1974 ~ 75年 期間의 第1次 石油波動과 越南의 赤化가 우리에게 준 衝擊은 대단히 큰 것이었읍니다. 油價가 4倍나 引上되어 國際収支의 赤字가 감당할 수 있는 水準을 넘어섰으며. 이러한 海外要因에서 發生한 生産費上昇이 즉각 輸出主導型의 우리經濟에 致命的인 打擊을 주었읍니다. 당시에 도 우리는 海外 金融市場에서 中·短期 借款을 導入함으로써 輸入量 減少에 따른 景氣沈滯와 失業率增加의 惡循環을 防止하는 短期戰略을 세웠던 것입니니다. 그리고는 마침 일기 시

작한 中東建設 붐과 輸出先의 多邊化등을 통하여 곧 危機에서 벗어나 다시 黑字構造로 轉換할 수 있었읍니다.

지금 우리經濟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은 이러한 지난날의 經濟政策의 歸結로서 어쩌면 宿命的인 것인지도 모릅니디. 지금 段階에서 새로 經濟開發을 시작한다해도 결국은 同一한 戰略을 選擇할 수 밖에 없다는 뜻에서 저는 宿命的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 다.

만약 20年前 經濟의 白紙狀態에서 出發할 때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미리 正確하게 豫測하고 果敢한 措置들을 取하는데 주저했다라면 지금정도의 經濟마저 가질 수 없었을 것임은 分明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각하기보다는 行動하면서 意慾을 앞세워 邁進하다가 副作用이 나타나면 事後에 軌道를 修正하는 試行錯誤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 다.

開發의 初期段階, 國民經濟의 規模가 작았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또 그게 옳은 길이기도 하였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狀況이 크게 달라졌읍니다.

經濟의 各 部門이 커다란 機械의 톱니바퀴와 같이 正
確하게 서로 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國際化가 進
展됨에 따라 經濟의 어느 分野도 海外要因과 상관없
이 풀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60年代 中盤에 名經濟長官이 한분 있었읍니다. 뛰면
서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政府의 經濟팀 總首로서
果敢하게 밀고 나갔읍니다 經濟計劃의 荒無地에 1
次 5個年計劃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우리經濟에 活力
을 불어넣는 일에 뛰어난 功을 남긴 분입니다. 저
는 가끔 그분의 業績과 功勞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經濟史에 길이 남을 분이라고 欽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그분이 지금 같은 자리에 있다고 假
定해 봅시다. 세상에서는 지금도 그분같은 스타일의
經濟政策이 나와야 일이 시원시원하게 풀리리라고 생
각하는 분들이 있는듯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의 經濟는 15年前의 그것
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輸出規模는 1億
달러 정도였읍니다. 1億달러 輸出이 零이 된다면
더라도 外國에서 1億달러의 援助를 따로 받게 되면

그런대로 큰 탈 없이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億달러의 輸出經濟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 배나 되는 큰 經濟입니다. 이것이 안될 때 200億달러를 한 해에 끌어들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렵도 없는 일입니다. 目標의 20분의 1인 10億달러만 未達하는 事態만 생긴다해도 國內經濟 全般이 받게 될 打擊은 想像보다 훨씬 深刻한 것입니다. 뛰면서 생각할 그런 段階는 지난 것입니다. 생각한 뒤에 뛰고, 뛰고 나서 다시 생각해도 不足한 그런 段階입니다.

(2) 지난날의 政策에서 어떤 教訓을 얻어야 할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經驗으로부터 어떠한 教訓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지난 20年間 遂行해온 經濟開發戰略에는 은연중 “行動은 思考보다 더 效果的이다”라는 基本姿勢를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어떠한 産業分野에 集中投資를 할 때에는 短期的 政策思考에 치우

쳐 豫測과 判斷의 잘못에서 생긴 副作用은 試行錯誤를 통하여 是正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姿勢를 止揚해야 합니다. 開發初期에는 行動爲主의 사람이 成功하지만 技術集約的인 高度産業社會를 建設하려면 우리는 생각하고, 따져보고, 比較하고, 많은 사람이 主張한다고 分別없이 그러한 流行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키워야 하며, 形式主義的 思考方式에서 하루속히 脫皮하여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韓國經濟가 얼마나 世界經濟와 有機的 關係를 가지고 發展해 왔는지 이를 正確하게 認識할 必要가 있습니다. 70年代에 일어난 自由世界經濟의 不況은 곧 우리 自身の 不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韓國經濟의 不景氣는 純粹한 國內景氣의 週期的 變動에서 發生했다기보다 國際景氣變動의 波及效果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國際情勢와 國際市場의 動向을 綿密히 分析하여 國內投資·經營戰略을 樹立함에 있어서 世界經濟의 週期的 變動과 世界經濟를 決定짓는 非經濟的 要因에도 좀 더 큰 關心을 가져야 하리라

고 봅니다. 過去처럼 海外要因에 事後的으로 對應하는 程度를 넘어서 世界經濟의 흐름을 敏感하게 把握하고, 그 흐름 自體를 몰아가는 勢力과 緊密한 協力, 妥協, 調整, 交渉을 할 수 있는 基礎實力을 쌓아야겠습니다.

세 세로, 우리經濟의 運營方式을 漸進的으로 民主化하여야겠습니다. 나라의 經濟를 左右하는 重大한 決定權이 지나치게 政府에 集中되면 政府의 判斷에 依存하게 되고 均衡과 牽制의 惠沢을 받지 못하여 過剩反應이 쉽사리 發生합니다. 이와 反對로 投資決定權이 民間企業에 널리 分散되어 있으면 投資家 自身이 損益의 責任에 敏感하게 되고 過去와 같은 劃一的 運營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느 産業이 有望産業이나하는 判斷은 역시 投資家 自身에게 맡기고 그 結果에 대한 責任도 投資家 自身이 지는 市場經濟體制의 基礎的 要件을 形成하고, 政策産業은 大幅 縮小하여 防衛産業과 같은 必要한 部門으로 局限할 時期에 到達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理想的 經濟運營方式이 現實化되려면

그 前提條件으로서 企業의 責任經營風土가 반드시 앞서 造成되어야만 합니다. 즉 企業人들이 事業計劃을 할 때 政府로부터 事前保障을 받아야 한다든지 市場에서 받은 判斷에 대해 事後的으로 救濟金融이다 基幹産業保護다 하는 無責任한 要求를 하지 않는 經營의 責任性을 行動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前提條件이 成熟되지 않은 段階에서 本格的 民間主導型으로 轉換한다면 그러한 政策은 하나의 形式에 치우치게 되고 오히려 混同과 不合理性만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企業의 責任經營風土가 造成된 以後에도 우리는 經濟에 관한 政府와 企業의 役割을 完全히 分離하여 兩者間의 關係를 하나의 對立關係로서는 看做할 수 없습니다.

國際化된 現代國家의 經濟에서는 自由放任이나 政府의 保護介入이나 하는 兩者択一的인 생각으로서는 問題의 解決이 至難한 中間領域이 登場・擴大되고 있습니다. 經濟發展計劃의 樹立, 財政投融資活動, 技術革新, 輸出市場의 開拓등의 分野에서 政府의 役割이 重

視되어야 하며 具體的으로 政府가 主動이 되어야 할 部門은 國際市場으로의 進出이 不可避한 産業分野, 産業巨大化에 따른 危險負擔을 隨伴하는 投資와 産業活動의 體系化를 要하는 分野, 國防·環境保存 및 社會間接資本施設等입니다. 이러한 點을 考慮하여 볼 때 政府의 機能과 役割은 明確히 再定立되어 民間經濟의 自律性和 自主性を 尊重하고 競争을 통한 創意와 活力을 期待할 수 있는 分野를 發展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民間經濟와 政府가 固有한 特性을 살려 兩者의 調和와 協調를 形成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3) 金融機關은 어떤 役割이 要求되나

投資審査를 맡고 있는 金融機關은 事業分析과 與信管理를 擔保라는 消極的 安全裝置에만 依存하지 말고 더욱 緻密한 事業性 分析을 하여야겠습니다. 어느 産業分野에 政策的 支援을 하겠다는 政府의 趣旨에는 事業의 妥當性を 檢討해 보지도 않고서도 該當 事業體를 支援하라는 意味는 內包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욱이 여러분들은 倒産한 會社가 提供한 擔保의 虛構性을 너무나 뼈저리게 體驗하셨으리라 믿습니다.

投資審査를 改善하기 위해서는 우선 金融機關의 人事政策도 새로운 方向으로 展開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過去에는 經商系統 爲主로 新入行員을 募集하고 年功序列에 따라 소위 “무리없는 人事”를 原則으로 하여온 것이 事實입니다. 따라서 金融人은 長期勤務에 關心을 두고 委任받은 決定權도 獨自的 判斷에 따라 行使하지 않고 수많은 上級者의 決裁속에 自己의 責任을 묻어버리려는 惰性を 보인 것도 是認할 때가 왔습니다. 問題는 그와같은 많은 사람이 決裁를 하였어도 決裁者들은 그 內容을 자세히 알 時間도, 意慾도 없었다는데서 發生합니다. 虛에다 虛를 더할 때 實이 나올리는 없습니다.

審査業務를 強化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工學, 社會學, 會計學 심지어는 灌溉, 熱管理, 林業등의 專門家도 널리 기용하여 融資申請을 技術面에서도 綿密히 檢討하고 支援企業의 經營政策에도 수시로 諮問하는 새 金融風土를 造成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上部로 갈수록

決裁의 件數를 줄이고 少數의 包括的 問題에 관한 깊은 研究를 할 수 있고 判斷의 基盤을 充實化할 수 있는 方向으로 業務時間을 再割當함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또한 下級者가 授權行爲를 스스로 行使하지 않고 上部에 再移讓하려는 無責任한 任職員의 그릇된 姿勢는 人事政策에 反映되어야 하며 授權行爲의 結果에 대한 選別的 論功行賞을 하는 人事風土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政治的 民主主義에서와 같이 經濟的 民主主義에 있어서도 自由의 責任性은 必須不可決한 要素이며 이를 制度化·生活化하지 못하면 우리는 理想과 現實의 間隔만 넓혀 놓은 世代로 歷史에 記錄될 憂慮가 있습니다.

Ⅳ. 80年代에 豫想되는 經濟政策与件

(1) 国内與件… 밝은면 어두운면

以上과 같은 背景속에서 發展해온 우리 經濟가 앞으로 國內·外的 環境의 變化로 인하여 繼續 挑戰과 試鍊을 받으면서 發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經濟運營에 影響을 미칠 그 與件變化의 性質을 豫想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 經濟의 밝은 면을 말씀드릴다면

- 企業人の 經營管理能力은 過去보다 더욱 強化될 것으로 豫測되며 好況과 不況을 두루 體驗하고 世界市場에 接近하는 經驗을 쌓아온 우리의 企業人들은 앞으로 景氣變動에 對應하고 企業의 國際化를 維持함에 있어서 繼續 發展할 수 있는 資質을 갖추고 있습니다
- 또 우리 技術者, 勤勞者들도 이제는 相當한 程度의 産業技術을 연마했고, 生産單位의 構成員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意識構造와 專門知識을 繼續 涵養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몇차례의 不況과 繼續되는 物價上昇에도 不拘하고 우리의 勤勞者들은 忍耐와 矜持를 가지고 보다 나은 來日을 위하여 竭盡의 努力해왔습니다. 이러한 勤勉한 勤勞精神은 아직도 世界 上位水準에 있으며, 適切한 技術投資를 推進한다면 그들의 生産性和 所得도 다시 上昇할 수 있다고 確信합니다.

- 이와 併行하여 우리에게서 政府·學界·産業界·金融界 등 社會各界에서 活躍하고 있는 優秀한 테크노크라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쉽사리 求할 수 없는 貴重한 高級人力으로서 産業民主主義를 先導하는 能力和 意志를 갖춘 우리의 人的 資源입니다.
- 實物面에서 보면 70年代를 通하여 우리는 重化學部門에 施設投資를 繼續하여 初歩的이나마 稼動段階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點은 勿論 不況下에서 短期的으로 볼 때 企業의 財務構造를 弱화시킨 要因이 되지만 어느때가 世界景氣가 回復될 때에는 우리의 競爭對象國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潛在力이 될 것입니다.

이 段階에서 우리의 競爭國들이 이 程度의 施設 投資를 하려면 우리보다 몇배나 더 많은 資源을 投入해야 할 것이고 經驗不足에서 發生하는 隔差는 補填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 그리고 이러한 모든 要素를 組織·融合해야하는 우리나라 各界의 指導層들은 經濟開發에 관한 意志를 가졌고 經濟發展의 根本的 目的에 관하여 幅넓은 意見의 一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反面에 80年代를 通하여, 우리 自身の 힘과 智慧로서 試鍊을 克服하고 解決하여야 할 問題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몇가지를 整理해보면

人口增加·資源不足은 解決해야 할 어려운 課題

- 産業構造가 繼續 高度化되어 必然적으로 2, 3次 産業部門이 擴大될 것입니다. 그 結果 좁은 國土안에서 地面活用の 費用이 增加하고, 環境保存이나 傳統社會로부터 現代産業社會로 轉換하는데서 發生하는 社會的 葛藤이 豫想됩니다.
- 産業의 高度化가 一定 段階에 이르면 成長의 速度

도 自然히 緩慢하게 되는데 經濟人口는 當分間 繼續的으로 增加하기 때문에 雇傭의 機會를 繼續 擴大함에 所要되는 資本의 規模가 增大하여 그 財源을 마련하는데 問題가 생깁니다.

- 政府主導型에서 民間主導型으로 轉換하는데 따라 制度的 整備에 必要한 經濟에 관한 國民의 意識構造의 改造 自體가 必要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難題를 어떻게 解決할 것인가, 特히 過去에 물들어온 競争制限的 慣行을 撤廢할 때 發生하는 部分的 拒否反應을 어떻게 解消시키느냐하는 問題도 豫想됩니다.
- 長期화된 인플레이에서 發生하는 痼疾的 痼疾을 除去하는 社會的·經濟的 難點, 特히 財産所得者와 勤勞所得者의 所得隔差를 防止하고, 金融資産을 통한 國內 貯蓄動員機能을 再確保하는 問題도 重要합니다.
- 海外로부터 借入해온 外資의 對 GNP比率이 增加함에 따라 發生하는 要素所得移轉의 問題가 있습니다. 즉 利子등의 支拂로 인하여 GNP의 增加率이 GDP의 增加率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이를 잘못 取扱하면 長期的으로는 우리 經濟의 自立度を 弱화시킬 수 있

읍니다.

- 에너지資源을 비롯한 原資材의 安定供給源을 確保하고 輸入한 資源의 效率的 利用을 講究해야겠읍니다.
- 農地와、漁場등을 둘러싼 不利한 自然條件으로 말미암아 農·漁民所得이 相對的으로 낮아지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1次産業人口의 比重을 줄이고 그 生産性을 높여가는 問題등이 있읍니다.

우리는 繼續하여 이와같은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時代, 어느 國家를 莫論하고 生動하는 經濟는 반드시 解決해야하는 問題들을 內包하고 있는 법입니다. 問題의 存在 自體를 問題視한다면 우리는 가장 理想的인 人間社會를 共同基地와 同一視하는 우스운 論理의 信奉者가 될 것입니다. 人間社會의 問題는 問題點을 誤判하거나, 誇張하거나, 或은 意志를 喪失하여 自暴自棄하는데 있읍니다. 미리 問題點을 豫想하고 그 性格을 分析하고, 解決을 위하여 投入하여야 할 資源의 規模와 優先順位를 올바르게 設定하고 이에 對處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問題를 克服한거나 다름없음

니다.

(2) 海外与件的 变化…多元化와 不確實性的 增大

오늘날 世界에는 44億의 人口가 160餘個 主權國家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는 140餘個의 國家와 直·間接으로 交易하며 이들의 共同主權이 行使되는 公海를 거쳐 貨物을 輸送하고 人間이 往來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安全保障에 必要한 鉄鉞은 濠洲나 印度에서, 그를 製鍊하는 石炭은 美州等地에서 그리고 그 機械를 움직이는 燃料은 中東에서 導入한 것입니다. 近來에는 美國의 大平原에서 자란 옥수수가 우리 農家의 닭장을 거쳐 계란과 닭고기의 形態로 우리 食卓에 오릅니다. 反面에 우리가 建造한 船舶에 희랍語의 船名이 붙어있기도 하고, 東아프리카의 「마사이」族중에는 우리가 만든 트랜지스터에서 日氣豫報를 듣고 있으며, 英國의 主婦들은 우리가 輸出한 신발과 옷을 사야만 家計簿를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世界속의 韓國을 말해주는 20世紀의 現實의 断面입니다.

國際社會의 이러한 性格은 우리에게 여러가지를 示唆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80年代를 通하여 豫想되는 現象으로는

- 國際社會는 점점 더 多邊化되어가고 있습니다. 1945년에 50餘個 主權國家로 區分되었던 國際社會는 植民地의 獨立運動을 거쳐 이제는 160餘 國家가 되었고, 新生 獨立國들은 資源民族主義의 追求를 더 效率化시켰습니다. 몇차례의 石油波動은 그 直接的인 結果였습니다. 더욱이 近來에는 政治的 勢力圈이 그 意味를 점차 喪失하여 世界는 어느 超強大國이 主唱하는 秩序에서 벗어나 流動的 利害關係에 立脚한 實利的 同盟의 時代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經濟的으로는 技術의 變遷 - 이는 既存 資源의 代替品을 發明하거나 그 效率的 使用을 위하여 展開되는 經濟活動입니다 - 이 加速化되어 教育과 技術開發을 소홀히 하거나 自體內的 葛藤으로 精力을 消耗하는 民族은 落後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더욱이 지난 60餘年동안 熱戰을 벌여오던 「이메올로기」戰爭도 그 樣狀을 바꾸었습니다. 이미 共產

主義와 資本主義의 兩大 經濟體制間에 發生하였던 싸움은 共產主義의 慘敗로 인하여 그 形態를 바꾸어 單純한 軍事力의 競争으로 集中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國際社會 變遷의 基本的 性格을 考察해볼 때 將來에는 圖表로 表示할 수 없는 變化가 常例로 될 것임을 알 수 있고 不確實性만이 確實한 것임을 豫想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基本姿勢는 能動的으로 世界經濟에 參與하고 그 變化에 대하여 우리 自身の 方向을 機敏하게 調整할 수 있는 情報力과 推進力을 培養해야 할 것입니다.

V. 經濟政策의 目標

(1) 國富增大·均分·經濟安定이 3大目標

經濟政策의 基本目標을 一般化하면 時代와 나라의 區分이 없이 恒久的이고 共通的이라고 봅니다.

- 첫째로는 國民의 生活을 潤沢하게 하는 物質的 基盤을 確保하고 其他의 共同目的을 遂行함에 必要한 財源을 創出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企業과 政府는 單位勞動時間當 生産物의 實質價值를 向上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生産의 要素를 均衡있게 配合하는 政策을 摸索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國防과 社會安定이 무엇보다도 切實히 要求되므로 國富의 增大는 또한 生存의 前提條件이 되기도 합니다.
- 둘째로는, 增大된 國富를 均衡있게 配分하는데 經濟政策의 또하나의 目的이 있습니다. 우리 社會로부터 絶對貧困을 退治하고 基本需要를 充足하며 모든 國民이 貧困때문에 人間의 尊嚴性을 威脅받지 않는 社會를 建設하겠다는 굳은 意志를 大統領閣下께서는

表明하셨습니다. 國富의 增大 즉 成長自體는 均衡된 配分을 반드시 保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人間의 意志가 介入되어야 하고 때로는 基本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再投資를 減少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均衡된 配分”은 均等한 分配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며 能力과 成果에 따른 分配原則과 必要에 따른 分配原則을 具體的 形便에 따라 折衷하는 것이 政策樹立者의 任務입니다.

세째로, 經濟政策의 또 하나의 目標은 經濟安定의 維持입니다. 아무리 높은 所得과 均衡分配를 達成하였다해도 深한 景氣變動이나 供給中斷의 狀態가 發生하여 一時的이나 國民生活이 不安하여지면 經濟政策은 成功하였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2) 成長은 과연 無用한가

最近 巷間 一部에서는 成長無用論이 論議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見解로는 成長을 아무리 하여도 그 果實은 大企業家와 그들을 後援해주는 소위 支配層에만 돌아가고 勤勞者의 生計는 더 어려워지며

나라의 經濟는 外國投資家들의 搾取의 對象밖에 되지 않는다는 論理입니다. 이러한 觀念을 正確히 分析해보면 成長自體의 否定이 아니고 成長의 結果가 分配되는 樣狀을 批判하려는 것입니다.

成長無用論이 自由經濟體制下에서의 所得分配를 더욱 均衡的으로 發展시키려는 目的에서 發生하였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見解를 參酌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建設하려는 福祉國家의 理念도 單純히 零細所得者에게 財政을 通하여 生活補助金을 支給하는데 그치겠다는 消極的 概念이 아니고 全體 經濟構造를 더욱 開放하여 生産活動에의 參與機會부터 福祉化·均等化하겠다는 意圖입니다. 그러나 만일 成長無用論者들이 自由經濟體制下에서는 所得의 均衡分配가 不可能하다는 結論을 내리고 이것을 토대로 市場 經濟體制를 顛覆시키려는 行動을 合理化하였다면 우리는 이것을 단호히 拒絶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75萬名程度の 失業人口를 內包

하고 있고, 每年 約 50 萬名程度의 新規勞働人口가 發生하고 있습니다. 1次産業分野와 都市 一部에는 직도 原始的 生産方式에 依存하여 심히 不足한 所得으로 生計를 維持하여 나가는 國民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社會開發과 國家保衛를 위해서는 莫大한 財源이 所要되고 있습니다. 成長이 無用之物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方法으로 이러한 財源을 調達하겠습니까? 50年代와 같이 보리고 개에 시달리고 外國의 援助에만 依存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Ⅵ. 우리의 갈 길

이제 우리의 나아갈 길은 分明해졌습니다. 우리는 産業民主主義 國家를 建設하여야만 합니다.

이 理念만이 國民個個人的 創意力을 最大限으로 發顯시켜 주고 國民 相互間에 必然적으로 發生하는 見解와 利害의 差異를 가장 公正하게 調和시킬 수 있습니다. 이 理念을 具體化하는 過程에서 우리는 確定的 歷史觀을 排斥하고 形式主義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自由의 責任感을 깊이 認識하여 우리가 處해 있는 南北對決, 賦存資源의 缺乏 國際的 連帶性이라는 現實을 度外視하지 말아야겠습니다.

民間主導型의 經濟와 開放經濟의 原則은 産業民主主義에 到達하는 가장 有效한 手段입니다. 이를 實踐에 옮기려면 우리는 새로운 意識構造를 形成하여야만 합니다. 企業은 市場의 審判을 指標로 삼고 勤勞者와 經營者는 企業의 社會的 役割에 보다 積極的인 姿勢를 펴나가야겠으며, 政府는 支配意識에서 奉仕意識으로, 命令意識에서 誘導意識으로 하루속히 轉換해야겠습니다.

우리는 開放經濟體制가 外國資本의 國內浸透만을 助長한다는 單純理論에서 解放되어야겠습니다. 開放經濟는 一方的 關

係가 아닙니다. 現代 國際社會에서의 資本의 移動은 그 自體가 搾取가 아니고 缺乏한 生産要素의 補完現象입니다.

우리가 이 生産要素를 얼마나 有利하게 使用할 수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自立度가 決定되고 經濟의 均衡的 發展이 達成됩니다.

産業民主主義의 바탕은 무엇보다도 民主主義입니다. 經濟的 機會를 모든 國民에게 均等하게 保障하여 주는 것이 第1次的 目標입니다. 經濟的 機會란 能力을 培養할 機會이며 培養된 能力을 誠心껏 應用할 努力의 機會입니다. 一旦 均等한 機會가 주어지면 우리는 競争을 通하여 우리의 能力과 努力을 評價받고 그 評價에 따라 結果를 賦與받습니다. 이는 決코 最終 結果에 대한 保障이 아닙니다.

産業民主主義의 達成을 위하여 우리 金融關係人들에게 주어진 任務는 至大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處理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經濟가 무엇을, 얼마나, 언제, 어떻게 生産하고 우리 國民들이 그 果實을 어떻게 分配하는가에 큰 影響을 줍니다.

우리는 韓國經濟의 길잡이입니다. 우리의 共通目標은 가장 合理的인 擴大再生産이 持續될 수 있는 方法을 찾아내고 이를 實踐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國民이 貯蓄한

稀少資源을 한데 뭉쳐 가장 有效適切하게 使用할 수 있는 事業家에게 貸與해주고, 그 稀少資源을 우리에게 맡긴 분들을 代身하여 事業家の 活動을 繼續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이 나라에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自身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씩 比較해보면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보다 못지않게 有能하고 勤勉하며 忍耐力있는 民族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한 目標를 向하여 邁進하였을 때 이 나라의 經濟는 빛나는 成果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國民和合의 具體的 實利를 立證해준 우리 現代史의 教訓이었습니다.

우리 民族의 大團結, 政治·社會의 安定, 經濟의 發展은 우리의 個人的 力量을 한데 묶어 共同理念을 追求하는 意志와 自制力에 달려 있습니다. 發展을 위한 肯定的 姿勢를 取하여, 問題가 發生하면 問題를 解決할 機會가 왔다고 믿는 自信있는 態度를 가져야겠습니다. 小局的, 短期的 判斷에 사로잡혀 努力도 參與도 하지 않은 채 將來를 悲觀하는 姿勢, 나는 나고 政府는 政府다하는 民主國家의 主人답지 않은 生活觀, 每事에서 어두운 面부터 찾아보려는 態度는 國論을 分裂시키고 國力을 分散시켜 이 나라가 所持하고 있는 比較優位를 最大한 發揮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힘을 모아 새로운 時代를 맞이하려고 한
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理性이 支配하는 社會, 努力과 能力의 代價가 公正히 分
配되는 社會, 自由와 責任이 調和된 社會, 그리고 새로
운 價値를 創造하는 社會를 向하여 邁進해야겠습니다.
感謝합니다.

